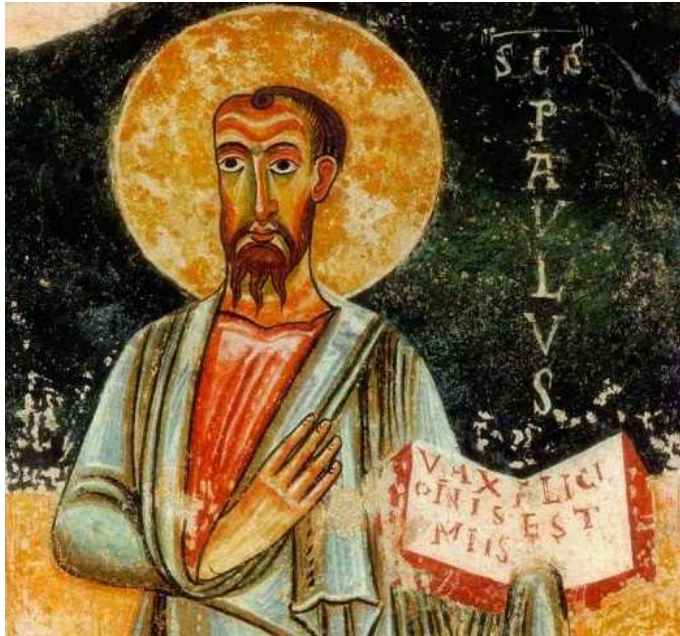


로마서 이야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Epistle to the Romans
GOD WHO MAKES NO DIFFERENC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1
20-10 Beonyeong 8-gil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머 리 말

이 우주에 단 한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으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다만 기다리실 뿐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백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흑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임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백정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양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놈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맏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탕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못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큰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교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큰 교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교단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일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꼴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남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어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병든 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도 되신다.

본서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로마서 이야기이다.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로마서 이야기를 신학적인 측면에서 해설한 설교이다. 교회에서 설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강의실에

서 로마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독서과제로 쓸 수도 있다. 본서에 실린 모든 설교는 로마서 본문을 중심으로 정해진 제목아래 거의 일정 분량으로 쓰였고, 한 개의 제목아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세 가지 주제 역시 분량이 거의 동일하다. 처음 두 개의 설교, “두 개의 길”(눅 15:11-32)과 “약속의 자녀”(요 1:12-13)는 로마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서론에 해당되는 설교들이다.

본서는 필자가 20년 동안 대학에서 <로마서와 구원>을 강의한 후에 빛과 생명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설교했던 것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여러 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본서를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오랜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주 오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용기를 얻었던 그 오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아주 오랜 주님의 자비, 저절로 나온 눈물, 이제는 아련해진, 그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소서. 아주 오랜 주님의 자비가 동녘의 빛살처럼 냉기속에 꽂히게 하소서. 미소가 피어오르게 하시고,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게 하소서. 찬양이 새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랜 주님의 자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길을 찾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무리,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은 민초, 폭풍만난 제자, 소경, 앓은 뱀이, 문둥병자, 다섯 남편가진 여인, 38년 된 병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 등, 앞 못 보고 걷지 못했던 상하고 찢긴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 주님의 자비를 입었던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본서를 읽고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오랜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1년 7월 21일
조 동 호

차례

머 리 말	3
1. 두 개의 길(눅 15:11-32)	
인류의 혈통	11
가인의 가계	12
셋의 가계	14
2. 약속의 자녀(요 1:12-13)	
역사를 신앙적 의미로 풀이하기	17
기쁨의 소식(복음)	18
기독교의 정체성	20
3. 운명의 결정권(롬 1:1)	
하나님의 비밀	23
기독교의 성공	24
그리스도의 노예	26
4. 하나님의 복음(롬 1:1-17)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29
바울의 사명 의식	30
미리 약속된 복음	32
5. 복음과 믿음(1:16-17)	
복음의 대상	35
복음의 주인공	36
주인공에 대한 믿음	38
6. 복음의 주제(1:17)	
바울의 하나님	41
하나님의 의	42

인간의 의	44
7. 하나님의 진노(롬 1:18-19)	
인간의 죄 문제	47
하나님의 진노	48
하나님의 명품	50
8. 하나님을 알만한 것(롬 1:19-20)	
하나님의 형상	53
자연(일반) 계시	54
특별 계시	56
9. 우상숭배(롬 1:21-23)	
우상의 정의	59
우상의 마법	60
마법의 해독제	62
10. 내버려두심(롬 1:24-32)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65
죄지을 성질	66
본능(本能)	68
11. 하나님의 심판(롬 2:1-16)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	71
자기 백성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	72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74
12. 율법의 문제(롬 2:17-29)	
신본과 인본	77
율법의 목적	78
할례의 유익	80
13. 인간의 숙명(롬 3:1-20)	
유대인의 나움	83
인간의 숙명	84

자유와 운명	86
14. 복음의 특징들(롬 3:21-24)	
믿음으로	89
차별 없이	91
값없이	92
15. 화목제물(롬 3:25)	
우리민족의 화목제물 개념	95
구약성경의 화목제물 개념	96
신약성경의 화목제물 개념	98
16. 십자가와 하나님(롬 3:25-26)	
왜 십자가를?	101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	102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104
17. 이방인의 하나님(롬 3:27-31)	
유대인의 하나님	107
이방인의 하나님	108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110
18. 믿음의 예증(롬 4:1-25)	
예표와 성취	113
믿음을 의로 여기심	114
부활의 믿음으로 된 상속자	116
19. 희망을 이루는 연단(롬 5:1-11)	
가나안입성을 위한 행군	119
가나안입성을 바라보는 즐거움	120
가나안입성을 위한 연단	122
20. 원죄, 유전죄, 자연법칙(롬 5:12-14)	
기독교 구원의 정점(頂點)	125
원죄와 유전죄	126

유전죄와 자연법칙	128
21. 보혈(寶血)의 소급적용(롬 5:15-21)	
유전죄와 육체의 죽음	131
구원과 육체의 죽음	132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급적용	134
22. 성화의 원리1(6:1-14)	
로마서 1-8장의 요약	137
칭의(稱義)와 성화(聖化)의 관계	138
성화의 원리	140
23. 성화의 원리2(6:15-7:25)	
믿음과 침례와의 관계	143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	144
율법의 성격과 성화의 갈등	146
24. 성화의 능력(8:1-39)	
로마서 8장의 대 선언	149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150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152
25. 유대인들의 구원문제(롬 9:1-18)	
복음전도의 우선순위	155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	156
도구에로의 선택과 구원에로의 선택	158
26. 남은 자의 구원(롬 9:19-33)	
단힘과 열림	161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162
하나님의 긍휼하심	164
27.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10:1-21)	
유대인들의 남은 자	167
유대인들의 열심	168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170
28. 하나님의 자기 백성(11:1-24)	
남은 자들의 예표	173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174
복음의 진보	176
29. 이방인의 충만한 수(11:25-36)	
하나님의 신비	179
이스라엘의 구원	180
하나님의 예정	182
30. 삶으로써 드리는 예배(12:1)	
하나님의 자비	185
살아있는 제물	186
값싼 은혜	188
31. 하나님의 뜻(12:2)	
기독교적 가치	191
내가 목이 마르다	192
이웃을 위한 존재	194
32. 교회의 기능과 역할(12:3-21)	
교회의 지체들	197
교회의 직임과 기능	198
교회의 역할	200
33.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13:1)	
위임 권세	203
권세의 조직들	204
자유지상주의	206
34. 국가권세가 실현해야 할 정의(롬 13:2-7)	
시민불복종	209
보복정의	210

분배정의	212
35. 율법의 완성법(13:8-10)	
모든 일은 사랑으로	215
사랑의 빛	216
사랑의 빛 갚기	218
36. 지금은 자가가 꺾 때(롬 13:11-14)	
자다가 꺾 때	221
구원이 가까웠다	222
참 안식	224
37. 견해차이의 문제(롬 14:1-23)	
비 본질의 문제	227
유대인의 보편적 사고의식	228
기독교인의 보편적 사고의식	230
38. 로마서 기록의 동기(롬 15:1-33)	
이방인의 사도	233
표적과 기사와 능력	234
바울의 로마방문계획	236
39. 바울의 반천련(롬 16:1-27)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	239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240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배후	242

1. 두 개의 길(눅 15:11-32)

인류의 혈통

신구약성경 66권은 두 길에 관한 이야기이다. 구약성경 39권을 지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신약성경 27권을 쓴 기독교인들도 두 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두 길은 서로 상반된 길로써 끝까지 가면 영원히 서로 마주칠 수 없는 길이다. 한 길은 약속(언약)의 길이고, 다른 길은 임의(자유)의 길이다. 한 길은 좁은(광야) 길이고, 다른 길은 넓은 길이다. 한 길은 순종의 길이고, 다른 길은 불순종의 길이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다. 한 길은 하늘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길은 세속(世俗)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두 길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나뉜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나뉜다. 생명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로 나뉜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약속의 자녀, 생명의 자녀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하였다. 이 정체성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인류를 선민과 이방민족, 두 민족으로 나눴다. 기독교인들도 인류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민족으로 나눴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혈통을 중시하지 않았다. 혈통으로 말하자면, 인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이 손으로 아담을 빚은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담이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따라서 혈통이나 색깔이나 언어나 민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한 혈통이나 색깔은 의미가 없다.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신앙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문제가 된다. 탕자비유의 핵심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집을 지킨 맏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 두 아들에서 신구약성경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맏아들은 유대교인들의 대표로서 이 맏아들의 입장에서 쓴 성경이 구약성경이다. 탕자는 기독교인의 대표로서 이 탕자의 입장에서 쓴 성경이 신약성경이다. 맏아들의 입장, 즉 선민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탕자의 입장, 즉 이방민족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맏아들이든, 탕자든 다 아버지의 동일한 사랑의 대상이란 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탕자 또는 이방민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이 될 수도 있고, 복음적이 될 수도 있다. 율법적이란 맏아들의 태도를 말하고, 복음적이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의 태도와 밤낮없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를 말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탕자도 하나님의 자식이란 점이다. 그는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집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이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탕자를 일컬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였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란, 칼뱅의 주장처럼,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은 탕자가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기독교인들은 탕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인의 가계

창세기는 아담이후 인류가 두 개의 길로 나뉘진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초점이 약속(언약)의 자녀에 모아지고, 출애굽기부터는 전적으로 그들 선민에게 집중되고 있

다. 바울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였는데, 구약성경에도 이 약속(언약)의 자녀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구약성경에서 족보는 세속적인 족보나 혈통에 제한된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 언약에 바탕을 둔 족보, 약속의 자녀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적인 정확성이나 혈통의 공유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유, 정신의 공유, 언약의 말씀 토라와 그 가르침의 공유를 매우 중시하는 폭넓은 의미의 족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과연 유대인인가?”를 판단할 때, 혈통보다는 유대교 신앙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혈통을 뛰어넘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분과 언약한 자들을 형제자매로 보는 큰 틀의 역사이해를 갖고 있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듯이 아담직후부터 인류는 두 개의 길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었고, 다른 길은 인간이 임의(자유)로 가는 길이였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였다. 특히 창세기는 땅에 속한 자손과 하늘에 속한 자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관해서 기술해 놓고 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의 가계와 셋의 가계가 나온다. 가인과 그의 7대손까지의 기록이 나온다.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서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셋의 가계, 곧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먼저 드러난 가인의 가계에서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가인의 가계는 불행하게도 살인자의 피가 흐른다. 가인의 살인(창 4:8)이 라멕의 살인(창 4:23)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인과 라멕의 살인행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죄악과 세속에 눈을 떴다는 뜻이고, 물 컵에 떨어진 먹물이 급속히 번지듯이, 선악과 사건이후 땅에 속한 인간의 역사는 생명파괴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의 역사로 발전되어갔다.

둘째, 가인의 가계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인간의 문명은 오히려 진보하였다. 가인이 성을 쌓는 기술을 발전시켰고(창 4:17절), 야발이 목축기술을 발전시켰으며(창 4:20절), 유발이 음악을(창 4:21절), 두발가인은 금속가공기술을 발전시켰다(창 4:22절). 그러나 인간문명과 기술의 발전은 불행하게도 라멕의 '칼의 노래,' 곧 그의 살인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악용되었다. 인간문명의 발전은 대부분 살상도구나 전쟁무기의 개발에서 비롯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용(善用)이다.

셋의 가계

그러면 살해된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계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무엇일까?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셋부터 시작하여 에노스에 이르는 셋의 가계는 '천국에 속한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다. 셋의 가계가 가인의 가계와 다른 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생명살림)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의 후손은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창 4:26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자, 생명살림의 가업을 이어갔다는 뜻이다. 가인의 가계가 '땅에 속한 자손'이 이룬 물질문명의 세속적인 발전사라고 한다면, 셋의 가계는 '하늘에 속한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룬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과 윤리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 하나님은 이 셋의 가계와 혈통, 곧 약속의 자녀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가고 계신다.

가인의 가계에서 보듯이, 땅에 속하여 땅의 지배원리, 곧 타락한 약속강식과 적자생존의 자연법칙에 따라 살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 곧 넓은 길을 걷는 부류가 있고, 셋의 가계에서 보듯이,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지배원리,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칙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구원의 길, 곧 좁은 길을 걷는 부류가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은 생명의 길, 살림의 길이다.

가인과 아벨이 상징하는 바는 가인으로 대표되는 세속사 또는 타락사, 그리고 아벨로 대표되는 신앙사 또는 구원사에 있다.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칼을 가진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왔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선에 대한 악의 박해를 상징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벨의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순교란 사실이다.

우리 성도들은 아벨과 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천국에 속한 자손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요, 생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다. 땅에 속한 자손들로부터 언제 어떻게 고난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

천국에 속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다. 이 계보는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로 이어진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바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고, 신앙세계와 종교문화를 대표하는 자들이며, 항상 하나님의 존재와

16 / 로마서 이야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포상받기에 합당하게 살뿐 아니라, 이 땅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하나님의 통치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 약속의 자녀들의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 시켜가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어느 가계에 속하고 있는가?



2. 약속의 자녀(요 1:12-13)

역사를 신앙적 의미로 풀이하기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담 한 사람에게 의해서 된 것처럼,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 한 사람에게 의해서 시작되었다. 인류가 노아의 아들들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인류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자매인 것을 깨우쳐준다.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고 설교하였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에 따라 크게 세 민족으로 나누어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언약백성인 셈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열방과 민족의 뿌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국수적이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지역감정, 민족감정, 잘못된 인습과 문화의 틀을 깨버릴 때, 계시록 7장 9-10절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께 있음을 찬양할 수 있다.

창세기 10장에서의 족보는 다른 족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가계 중심의 족보라기보다는 민족중심의 족보라고 할 수 있다.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나무뿌리로 제시해 놓고, 그 나무의 세 줄기를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야벳과 함으로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들 세 줄기로부터 70개의 종족의 명단을 언급하였다. 이 숫자는 우연의 일치이기보다는 완전수라는 유대인의 개념에 따른 것으로써 문자적인 역사기술이기 보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 해석으로써의 역사기술이다. 성경에서 이집

트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을 70명으로 설명한 것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40세대로 설명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과 삶을 신앙적 의미로 풀이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기술방법을 '해석으로써의 역사'라고 부른다. 함석헌 선생은 이 해석의 역사를 요리사의 맛난 요리와 화가의 그림에 비교하였고, 이런 식의 역사가를 요리사와 화가에 비교하였다. 역사라는 재료를 잘 배합하여 깊은 의미를 담아낸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해석이 없는 역사기술은 밥그릇에 익히지도 아니한 쌀을 담고, 무 파 배추 등을 조리도 하지 아니한 채 상에 차려 내놓고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는 무정한 요리사와 같다고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말하였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민족의 개념과 지리적 개념을 포함한 족보로 기술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른 족보들에 비해서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는 종족과 지역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 인류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아담에서 비롯된 가족임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통해서 종족이 퍼져나갔듯이, 홍수이후에도 노아를 통해서 다양한 종족들이 퍼져나갔다. 비록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거주지역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들이다. 그것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한 아버지에게 착실한 맏아들이 있었고, 집나간 둘째아들이 있었는데, 재산을 탕진해버린 못난 둘째아들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극진히 온 마음으로 환대한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모두 존귀한 자들로 바뀌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요 1:12).

기쁨의 소식(복음)

2천 년 전 기독교가 시작되기 이전,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면,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자매요 존귀

한 자란 기독교사상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았다. 특히나 노예들은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투우를 일컬어 잔인한 동물학대라며 당장에 멈출 것을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대의 로마인들은 검투장에서 뿐 아니라 상류층 가정에서조차 주인의 손에 운명이 맡겨진 노예들이 펼치는 죽음의 향연을 즐겼다. 그들이 일으키는 희뿌연 모래먼지와 칼에 베이고 찢려 피가 허공에 솟구치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며, 목이 잘려 나갈 때마다 즐겁다고 광란하였다. 인간이 소 돼지만도 못하고 파리 목숨보다 못했던 것이다. 소나 돼지처럼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갔고, 주인이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했고, 수시로 지하 감옥에 갇혔으며, 여자들은 수시로 겁탈 당하였다. 그들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노예들이 고대 로마에 자유민의 30-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자유민의 삶도 순탄하거나 평화롭지가 못하였다. 전쟁이 일어나 언제 정복군의 노예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고, 무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배고프고 고단한 삶이었다. 더욱이 유대인처럼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속주민의 신세로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그 형편이 더욱 비참하였다. 바로 이때에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고귀한 자녀라는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었다. 하나님이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인간답고 이성적인 대접을 받게 하며,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의 세계로 옮기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대 선포가 있었다(요 3:16). 실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엄청난 선언,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었다.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그

의 제자들이 선포한 이 복음이 지난 2천년 동안 남녀노소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소식이 되었는지 모른다.

수천 년의 세월과 고립된 문화로 인해서, 기후와 계절의 차이로 인해서, 피부색이 달라지고, 또 달라진 것이 유전되고, 언어와 문화와 문명의 격차가 생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자매들이다. 다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착한 맏아들과 허랑방탕한 둘째가 있었던 것처럼, 인류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다. 탕자로 대표되는 '땅에 속한 자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계신다.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도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탕자의 형, 맏아들처럼 마음을 악완하게 먹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정체성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과 탕자의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본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맏아들은 착실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율법적이고 오만하며 배타적이었다. 그러나 둘째는 비율법적이고 불순종한 탕아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회개한 사람이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의 관심을 이방인들, 특히 가난하고 죄 많고 소외당하고 병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여자와들과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이런 이들을 위로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가를 적고 있다. 탕자의 비유를 포함하여 거만한 기도를 올린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의 기도,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강도만난 자를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등 예수님의 선교비유를 14개나 실었다.

신약성경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민족임을 자부하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한 유대인들에게서 동일성을 찾지 않고, 탕자처럼 죄가 크지만, 회개한 자들 또 그런 이방인들에서 정체성을 찾았다. 또 유대인들의 조상 야곱이 형으로부터 적통(嫡統)을 빼앗고, 신앙의 뿌리를 이어간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장자인 유대교로부터 적통을 빼앗고, 참 하늘에 속한 백성, 천국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선민공동체로 정체성을 설정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적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결정짓는 것임을 암시한다.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과 유대교와 기독교에 닮아있다. 맏아들인 에서가 적통에서 멀어지고, 둘째인 야곱이 적통을 잇듯이, 후발주자인 기독교가 선발주자인 유대교의 적통을 빼앗고 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을 '옛 언약' 선민, 자신들을 '새 언약' 선민으로 인식하였다. '구약'이란 말과 '신약'이란 말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줄임말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적자(嫡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민족으로도 혈통으로도 색깔로도 문화로도 종교로도 성씨로도 결정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결정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이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도 에서와 야곱처럼, 맏아들과 탕자처럼 전혀 상반된 길을

건게 될 수 있다. 야곱도 탕자처럼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잘못과 부족을 회개하였다. 그 일이 있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했지만, 야곱은 신앙 하나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속의 자녀로서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남길 족보는 무엇인가? 혈통에 의한 족보인가, 신앙에 의한 족보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것인가, 혈통과 학벌과 명예와 권세에서 찾을 것인가, 하늘 길을 걷는 신앙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에게 도달된 기쁨의 소식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

3. 온명의 결정권(롬 1:1)

하나님의 비밀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즉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였다. 한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도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두지 않았다. 결국 유일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그 한분을 독차지한 민족이 유대인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그들에게 세상에는 오로지 두 민족이 있을 뿐이었다. 유일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민족의 하나님으로 모신 선민 유대민족과 수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신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민족들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방세계에 아무리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무리 많아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유대인들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이 바울이었다.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힌 배타적 유대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주장이 힘 있게 실린 글이 로마서이다. 바울 자신은 이 사실의 깨달음을 가장 신비한 은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비밀’ 혹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렀고, 만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자기 시대에 비로소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였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받게 되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사도로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였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이 누릴 특별한 복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하는 발칙한 배신자였다. 최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들과 함께 나누자는 정운찬 전 총리의 이익공유제 주장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색깔론과 이념 잣대로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몫의 이익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이방인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는 바울의 깨달음은 유대인들로부터 매(박해)를 버는 일이었다. 바울이 그토록 여러 번 유대인들로부터 고초를 겪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무튼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였다.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당시 로마사회는 자유민이든 노예든 삶 자체가 처참하였다. 가난했고,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언제 난리를 겪을지, 언제 노예로 팔릴지, 언제 겁탈을 당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때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민을 평등하게 만드셨고, 자녀삼기 위해서 이 땅에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선포는 복음이 되었다.

기독교의 성공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던 2천 년 전 근동세계의 상황은 온통 전쟁이었다. 당대는 로마제국이 천하를 통치하던 시기였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헬라제국이 지배

하던 땅이었고, 그 이전은 페르시아제국, 또 그 이전은 바벨론 제국, 또 그 이전은 앗시리아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앗시리아제국이었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제국이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제국에 이어 페르시아제국 그리고 헬라제국을 거쳐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는 로마제국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이런 상황, 즉 불안과 절망 속에서 동물처럼 살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희망을 불어넣은 메시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것이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종전의 신분을 그대로 갖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주인도 노예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곳곳에서 조금씩 발전되어나갔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자기들의 시대를 교회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맞보고 경험하는 종말론적인 시대로 인식하였다. 초창기에만 해도 교회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로부터도 이단시 취급될 뿐 아니라, 탄압을 받던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공동체에 불과하였다. 그 와중에 교회는 10여 차례 큰 박해를 당하였지만, 설립된 지 283년 만인 주후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로부터 80여년만인 주후 392년에 1,145년의 오랜 역사(주전 753년에 로마 건국)를 자랑하던 로마제국을 기독교 왕국으로 바꿔버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에 대해서 18세기 영국인 에드워드 깁본(Edward Gibbon)은 『로마제국의 몰락사』(1776-88)란 책에서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일신교 신앙을 단호하게 지켜냈다는 점; 둘째, 신자들에게 사후의 세계를 보장했다는 점; 셋째, 수많은 기적들이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 넷째, 신자들이 깨끗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 다섯째, 그리스도인공동체들이 일치단결해서 로마제국 내에 독립된 사회를 구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965년에 영국인 에릭 도즈(Eric R. Dodds)가 『불안의 시대 안에서의 이교도와 기독교도』란 책을 냈고, 로마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적 배타성이 불안의 시대를 살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되었다는 점;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의 어떤 차별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점; 넷째, 일체감이 강한 그리스도인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의식주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남녀노소빈부귀천민족색깔의 차별을 두지 않았던 기독교의 위대한 평등주의, 즉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동등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불렀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종(doulos)이란 노예를 말한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제국 당시에 노예는 소 돼지와 같은 주인의 재산목록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로마제국은 해방노예들에게는 일반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였지만,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주인은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가 있었다. 또 노예는 동물처럼 노예시장에서 팔고 살 수 있었고, 몸에는 불 인두로 지진 노예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인은 노예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에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가 4만 명이었는데, 노예는 그 배가 넘는 9만 명이었다. 노예가격은 의사, 교사, 기술자와 같은 숙련기술자의 경우 농장이나 광산에서 일

하는 비숙련 노동자보다 40배가 더 많았다. 숙련노예의 가격은 최하층 시민권자가 버는 일 년 수입의 2-3배에 달했다고 한다. 아테네와는 달리 스파르타쿠스가 주도한 노예반란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기의 로마는 시민권자와 자유민이 7-8백만 명 정도였는데, 노예는 30퍼센트에 해당되는 2-3백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속주민과 시칠리아 지역의 노예들을 합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로마인들은 노예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르면 속주민도 절반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말하면서,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자유민의 30-50퍼센트가 노예였다고 보았다. 로마에서는 헬라인 가정교사가 가장 값이 비쌌는데, 가장 값싼 노예와의 가격차가 무려 100배나 되었다고 한다. 주전 73년에 있었던 노예반란 때, 8개 군단을 이끌고 노예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던 크라수스는 체포된 노예군 6,000여 명을 도로변에서 한꺼번에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줄지어 세워진 십자가는 수십 리에 달했다고 한다(<로마인 이야기>제3권, 210-221쪽).

바울의 노예개념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잘 이해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신학자 케제만은 이를 “운명적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바울의 이런 노예표현은 교직(敎職)을 의미하는 ‘종’(diakonos)의 개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종’은 자원해서 주인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 즉 일꾼 혹은 집사 등을 말할 때에 사용된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일꾼이나 집사개념으로 쓰지 아니하고, 노예개념으로 쓴 것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또 바울은 도망노예(fugitivus)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와 동역자로 불렀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에서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할 것을 간청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민족색깔에 상관없이 형제요 자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가?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 바울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4. 하나님의 복음(롬 1:1-17)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로마제국의 카라칼라 황제는 '안토니아누스 칙령'을 공포하여 로마시민과 속주민의 차별을 없애고, 제국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동등하게 로마시민권을 주었다. 이 칙령은 로마제국이 건국 일천주년을 35년 남겨두고 서기 212년에 공포되었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시민권은 더 이상 특권이 되지 못했다. 이 칙령의 공포로 인해서 노예를 제외한 제국내의 모든 자유민이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만을 선민으로 여기던 옛 시대의 특권을 새천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선민의 특권을 받는다는 바울의 복음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로마서 1장 1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씀은 바로 이 복음, 즉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자의식에 찬 말씀이다. 또 5-7절을 보면, 자신은 이 일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방민족에게 전파하여 그들이 예수님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는 일에 노예처럼 충성한다고 하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권으로 인식되었을지는 당대의 로마시민권이 갖는 특권이 얼마나 컸는지, 특히 시민권을 갖지 못한 수많은 노예들과 점령지 주민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의 상징이었는지를 알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로마제국은 시민권의 개념을 혈통에 두기보다는 정신에 두었지만, 그렇다고 시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국에 충성 봉사한 사람들이 종종 정부로부터 보상으로 시민권을 받았고, 의사나 교사와 같은 고급인력 또는 로마군단에 입대하여 16년, 20년 혹은 25년간 복무하고 제대해야 받을 수 있었다. 때로는 많은 돈을 주고 사기도 했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는 시민권의 개념을 혈통에 두었기 때문에 부모가 둘 다 아테네 시민이 아니면 아테네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아테네 시민이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케이온(Lykeion)이란 이름으로 후세에까지 알려진 고등학교를 창설하는 등의 아테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에 공헌하였지만, 도시국가 아테네는 이 위대한 철학자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개종하여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개종침례를 받도록 했고, 남자는 추가로 할례를 받도록 요구했다. 또 모세오경에 담긴 613개의 계명과 39가지 범주의 안식일 법을 모두 지킬 것을 서약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준수나 혈통이나 돈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오직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오랜 기간 로마군에 종사하거나 돈을 쥐야 사는 그런 값비싼 시민권이 아니라, 전혀 돈이 들지 않고 능력도 필요 없는, 값없이 은혜로 받는, 로마시민권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이 복음이다.

마을의 사명의식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세전부터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택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전혀 차별 없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구원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이들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강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그 표현이 1절 후반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씀이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파송된 사명자이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에베소서 3장에서 밝힌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약속하셨던 여러 가지 복들을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하겠다는 기쁨의 소식이다. 이 기쁨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 감당을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함으로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고 하였다. 이 표현은 또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될 무거운 책임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빛진 자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소식이, 16절을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라서 마지못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로 여겼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의 특성과 사명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다. 자기가 누군지, 왜 사는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직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자기가 누군지, 왜 보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라는 것인지 등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들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왜 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날 아무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날 언제 부르셨고, 무슨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처럼 흔들림이 없는 뿌리 깊은 삶을 살 수 있다. 지루하거나 무료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람은 심심하거나 외롭다거나 하지 않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바쁘게 산다. 부름을 받고 꼭 이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재능에 상관없이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하고, 사명의식이 중요하다. 하면 즐겁고, 아무리 많이 해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많이 해도 또 하고 싶은 일,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또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울은 이 충천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령한 은사, 즉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선물을, 11절을 보면, 로마인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미리 약속된 복음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설명한 복음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와 같은 유대인들이라면 받아드릴 수 없는 주장이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주장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드리지 못했고, 상황은 지금도 같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차이 혹은 해석의 차이였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구약 예언서들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메시아는 유대민족만의, 유대민족을 위한, 유대민족에 의한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영광의 대탈출과 가나안 땅 정복,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이끌었던 제1대구원사건 때처럼,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 제2대구원사건을 이끌어야할 모세와 같은 인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메시아는 영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십자가에 죽지도 않는다. 메시아는 단지 모세 혹은 모세보다는 기량이 떨어지지만 다윗이나 엘리야

와 같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는 지도자요, 가나안 땅을 유대민족의 땅으로 회복시킨 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끌어 모아 예루살렘과 시온에 모이게 하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예배를 회복시키며, 세계가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게 할 인물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메시아를 구약 예언서들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유대민족은 물론이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해석한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이 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인류의 죄값을 대신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믿는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구약 예언서들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영적인 것이 즉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의 실체요 원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지상의 예루살렘과 시온과 성전을 말할 때,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과 성전을 말하였으며, 유대인들이 지상의 가나안 땅을 말할 때, 기독교인들은 천상의 가나안 땅을 두고 말하였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상의 가나안 땅 회복과 지금의 미국처럼 강력한 유다왕국건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이미 2천 년 전에 오셨고,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바울이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고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그 해석의 내용이 3-4절의 말씀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

으며, 죽었다가 부활하지도 않는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민족의 영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5. 복음과 믿음(1:16-17)

복음의 대상

바울이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로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두 민족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었다. 예수님의 두 아들의 아버지 비유로 말하자면, 맏아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요, 둘째 아들 탕자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었다.

첫째,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맏아들 선민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강조하였듯이, 613개의 계명 모두를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할지라도, 인간은 죄 때문에, 즉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들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하였다. 또 야고보도 그의 서신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율법의 특성상 모든 율법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즉 613개의 율법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죄를 범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를 범하든, 613개 모두를 범하든, 죄를 범하기는 마찬가지란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결론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요, 그것들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의 선민관계 또는 언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단단한 족쇄였다. 그들은 바로 그 선민사상, 맡아들 사상, 장자의식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구를 즐길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다른 모든 민족들이 도보로 목적지를 향해서 먼 길을 여행할 때에, 유대인들은 보다 쉬운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체력소모가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기를 갈 길은 멀고 자전거로는 더 이상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니, 자전거를 버리고 모두 승용차에 올라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천3백여 년 동안 자전거를 이용해 왔고, 승용차를 타보지 못했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그들이 열심히 자전거의 페달을 밟았으나 힘이 빠지고 지쳐서, 비록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멀리까지 갈 수 있었으나, 결국은 아무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의 승용차에 오른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다.

둘째,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하나님이 없는 탕자 이방인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 유대인들처럼 선민이 아니더라도, 비록 맡아들처럼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기만하면 맡아들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복음의 주인공

복음의 주인공이란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 구원사역의 임무를 완수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완성된 사역(finished work)이라고 말한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성육신(成肉身) 속에 나타났다. 요한이 복음서 1장 12-18절에서 언급한대로, 변화의 주체이면서 정작 자신은 변치 않는 말씀(Logos)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우리 인간들이 맡아들이든 탕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다.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경륜가운데 만세전부터 비밀로 간직해 오셨던 것인데 (엡 3장),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우리 인간에게 온 것이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11절에서 신분의 포기(renunciation)와 인간과의 동일화(identification)로 설명하였다. 이는 예수님이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우리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신 것을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한 권능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한 것이었다. 이로써 그분은 그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주(主)로 인정을 받으셨다.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낮아짐의 삶은 부활과 높임으로 보상을 받으셨다. 이는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장차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친히 모범으로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5절에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탕자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소개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증언하였다. 예수님

은 하나님의 진정한 맏아들이시다. 탕자인 동생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하는 맏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탕자인 동생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이 땅의 모든 탕자들의 진정한 맏형이시다. 또 바울은 6절에서 우리 또한 동일한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가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믿어 순종케 한다.’는 뜻은 성령님의 성화사역을 말한다. 이것을 미완성 사역(unfinished work)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사역이라면, 성령님의 성화사역은 미완성 사역이다. 이것이 미완성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여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결의 삶을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안내자처럼, 교사처럼, 의사처럼, 변호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며, 변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믿음으로 성도(聖徒)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주인공에 대한 믿음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탕자와 같은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으로써 처음 믿는 이들에게 요구된다. 이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 즉 마음에 영접하고, 또 그분에 관한 간단한 지식이나 진술을 머리로 믿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10장 9-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

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과 머리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관계된다.

그러나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을 '순종의 믿음'이라고 부른다. 믿음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결과를 말한다. 마음과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남들 앞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옮기는 믿음이다. 따라서 이 믿음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 혹은 '없다'로 드러난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위가 따르는 믿음, 신자답게 행동하는 믿음을 말한다.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 신자들이 가장 관심 없어 하는 부분, 한국 신자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다.

이밖에도 '은사로써의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특정인에게 공익을 위해 특정사역을 위해 주시는 믿음이다(고전 12:9; 13:2).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신앙인들이 관심을 갖는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교리의 믿음'이 있다. 건전한 기독교 교리를 믿음이라고 부른다(딤후 4:1,6; 유 3; 갈 1:23). 신학자들처럼 머리가 냉철한 신앙인들이 관심을 갖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의 간단한 진술과 지식을 크고 넓게 확대시킨 신학체계 또는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는 말들은 구원하는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리의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서 초신자를 위한 구원하는 믿음을 설명하였고, 로마서 6-8장에서 기신자의 순종의 믿음 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기신자의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설명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행위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다. 따라서 구원하는 믿음, 주

관적인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과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구원에 필수적인 믿음이다. 그리고 마음과 머리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믿음은 그가 과연 신실한 신자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6. 복음의 주제(1:17)

바울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절대자 신(神)이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나 오류가 없으므로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오류나 실수가 많으므로 죄를 짓게 된다. 의(義)란 '거룩'이란 뜻이다.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는 의로우심이 우리 인간에게 동일한 수준의 거룩함 또는 의로움을 요구한다면, 인간은 아무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요구 수준이 100점이라 할 때, 사람마다 능력이나 성품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점수의 차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학교에서 치르는 학업테스트와는 달리 아무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다.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이다. 100점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신(神)일 수는 없다. 완전한 신(神)만이 도달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그 점수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계명)뿐만 아니라, 개개의 율법에 따른 많은 율타리(게자이라) 법들까지 만들어 지키기를 강요하고 또 눈물겹도록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바울의 깨달음은 이렇다. 맞추지도 못할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놓고 못 맞으면 벌주겠다는 그리스-로마 신화식의 율법 지키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신(神)만이 도달할 수 있는 100점을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경우에도 도달할 수 없

는 인간들에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고 유대인들 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멍에를 무겁고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멍에를 가볍고 쉽게 하는 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멍에를 가볍고 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일컬어 바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거룩)'라고 표현하였다. 대다수 인간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엄격하시고 철저하실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100점 만점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반대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전혀 돈도 들지 않고, 전혀 힘도 들지 않는,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공평과 사랑으로 대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거룩)는 곧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거룩)의 역설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울의 이 깨달음에 기초한 것이 기독교이다. 우리는 지금 이 위대한 바울의 사상을 공부하고 있다. 게다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거룩)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만백성에게 공평하고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믿었다. 일찍이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유일신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위대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기독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거룩)는 보복정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공평하심을 뜻한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직역하면 기쁨의 소식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여기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 혹은 해방의 소식을 말하는

데, 구원의 소식 혹은 해방의 소식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원래 의(義)란 옳음 혹은 거룩을 뜻한다. 정의란 말과도 일치한다. 정의란 보복의 뜻이 있어서 행한 대로 그 대가를 받게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 보복정의를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게 되면, 로마서 6장 23상반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의 말씀대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 된다. 그래서 16세기경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란 말에 대해서 공포감을 크게 느꼈고, 하나님을 무섭고 냉정한 정의의 심판자로 여겼다. 그러나 성경연구를 거듭한 끝에 ‘하나님의 의’란 뜻이 로마서 6장 23하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는 말씀대로 죄인을 의롭게 하신다는 뜻임을 깨닫게 되었다.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정의가 아니라, 죄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죄의 노예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는 것을 깨닫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의 주제란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義)란 그들이 지키던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켰을 때의 결과를 말한다(롬 8:4; 10:4). 613개의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지켰을 때의 상태를 일컬어 ‘의인(義人)’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썼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킨 것과 관련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사이의 관계 회복에 관련된 말이다. 이 관계회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이 믿음으로 되는 의(義)를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부른다. 613개의 계명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의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받기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엡 2:8) 받는다고 말한다. 온라인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이체시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의 전가(轉嫁)라 부른다.

그 대신, 비록 하나님의 계명대로 철저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욕(情慾)과 육욕(肉慾)을 죽이는 생활, 이웃사랑, 경건생활 등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聖化)라 부른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하나님의 의(義)의 전가(轉嫁)인 칭의(稱義)에 대한 보답 또는 감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될 수 없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육체는 쇠하여지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인간의 의

로마서의 특징은 인간의 죄를 부각시킨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부각시킨 데 있다. 따라서 로마서는 인간의 죄와 구원을 대조시키거나 인간의 불의(不義)와 하나님의 의(義)를 대조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로마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과 ‘행위를 통해 율법의 완성으로 얻으려는 구원’을 대조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의로 받는 구원’과 ‘인간의 의로 받는 구원’을 대조시키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의란 유대인들이 613개의 계명들을 모두 지켜 하나님 앞에 의인(義人)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의 결과를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피조물이고, 실수와 오류를 피할 수 없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따라서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의란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일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 피조물이어서 오류와 실수

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만일에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은총과 사랑으로써 받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써 받는 것이며, 우리가 잘나서 또는 거룩하기 때문에 보상(報償)으로 혹은 대가(代價)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전가(轉嫁)시켜 주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류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공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의(義)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서 난 의”(빌 3:9), 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의(고후 5:21)일뿐이다. “믿음으로 하나님한테서 난 의” 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된 의와 같은 표현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義) 곧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받는 것이며(롬 1:17; 3:21; 10:3),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된 의(義)를 뜻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받아드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형벌을 받았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써 받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의(義)는 그리스도를 인류의 속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삼으신 데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고 하였다.

7. 하나님의 진노(롬 1:18-19)

인간의 죄 문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류가 안고 있는 죄 문제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인간은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입산수행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창조주의 존재를 의식하고 공경할만한 이성과 종교성이 있다. 도덕법을 만들어 지킬만한 사회성도 있다.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있다. 또 도덕법과 양심법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특히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련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바울은 1장 18-32절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기(계시) 때문에 이방인들일지라도 창조주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2장 1-1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도덕주의자들에게 양심법이란 것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특별하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3장 9-19절에서 결국 인류는 그들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 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고 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할 물음이 있다. 그 물음은, 왜 인간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가이다. 대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 즉 피조물이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를 피할 수 없다. 오류와 실수를 피할 수 없다면, 죄를 안 짓고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오류와 실수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죄를 완전하게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이다. 그런데다가 법이란 아무리 잘 지켜도, 혹 가다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죄를 짓는 게 되고 만다. 만 가지 법들 중에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613개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속성을 만족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기준을 인간에게 요구하신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고결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큰 죄도 죄이고, 작은 죄도 죄이다. 만일 하나님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란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아무리 깨끗하고 고결하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아무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날과 시간에 폭발하는 진노를 말한다. 노아시대의 홍수심판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향불심판 때처럼 혹은

재림의 날에 있을 대심판 때처럼 특정한 때에 폭발하는 진노를 말한다. 통상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한 시간과 날자가 임박한 때까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쉽사리 분노를 폭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노를 발하시면 노아 때의 홍수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허불심판처럼 엄청난 재앙이 인간에게 닥치게 된다.

신약성경에 쓰인 '진노'나 '분노'를 뜻하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뚜모스'(thymos)이고, 다른 것은 '오르게'(orge)이다. '뚜모스'는 쓰나미나 지진처럼 바람, 물, 땅, 혹은 표범처럼 짐승들의 거친 움직임에서 유래된 말이다. 신약성경에서는 대부분 분노를 의미한다. 반면에 '오르게'는 보복 혹은 징계를 뜻하기 때문에 불의를 갚아야 하는 통치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오르게'로써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드러나는 진노를 말한다. 그것은 마치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출현하여 불의와 부정을 일삼던 목민관을 심판할 때 드러내는 진노와 같다.

성경에서 사랑과 진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계량된다. 반대로 하나님 진노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계량된다.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자는 이 진노를 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자는 이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었다.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무조건 진노하시거나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이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

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수용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로부터 짓값을 지불받더라도 누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은 만족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한 싸움 끝에는 정당한 짓값을 받게 했더라도 쉽게 분이 삭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죽음은 하나님과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근본적으로 화해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삭일 수 있고, 인간을 용서하시고픈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종의 우리 선조들의 자책문화인 '조상매'와 같기 때문이다.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 탓을 당신 탓으로 돌리는 '내 탓 정신'이 하나님의 진노에 담겨있는 귀중한 개념이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할 점이다.

하나님의 명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전(前)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명품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상풍조와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명품답게 품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들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영적인 복들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것,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약정서에 직인 찍음으로 주신 것,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에 대한 약정서의 담보물로 주신 것들을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고 묻고 답하기를, 우리가 다 죄의 삯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며, 세상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으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품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전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란 소리를 듣던 자들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없었으며, 선민의 약속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황야의 늑대처럼 외롭게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덕분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고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비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 비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예수님이시다. 예

수 그리스도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속박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슈퍼스타,' 하나님의 '제3의 대안'이었다. 둘째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값도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계획이었다. 우리가 다 이 비밀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새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8. 하나님을 알만한 것(롬 1:19-20)

하나님의 형상

초자연적인 기적과 성경이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3차원의 보이는 물질세계에 갇힌 인간이 4차원 이상의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9-20절에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특성들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 사람 속에도 만물 속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럼, 사람 속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6-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과 어떤 모양을 말할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을 수는 없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인성(人性), 즉 지성(이성), 감성, 의지, 사회성이다. 인성은 인간 본성의 특질이면서 또한 하나님 본성

의 특질이다. 이 특질, 곧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인성, 즉 지성(이성), 감성, 의지, 사회성은 신(神)과 천사와 인간만이 가진 공통적인 특질이다. 물론 동물에게도 다소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와 사회성이 있지만, 인간처럼 지성으로 학문을 창출할 수 없고, 감성을 문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없으며, 본능 말고는 의지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관계성을 갖고는 있지만, 인간들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문명형태의 사회구조나 관계형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인성의 요소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예배자로서, 만물에게는 청지기로서, 예배와 찬양, 관리와 보전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인간이 관심하는 신학과 신앙은 지성과 감성보다는 결단과 관계회복에 비중을 둔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인성이란 그릇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그릇에 채울 의(義)와 진리의 거룩함이 내용물로 주었다(엡 4:24, 골 3:9-10). 그러나 인간의 거듭된 실수와 오류로 인해서 의(義)와 진리의 거룩함이 더럽혀졌다. 이 더럽혀진 내용물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갈 5:19-21) 같은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딤후 3:5) 회복된 내용물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갈 5:22-23)와 같은 것이다.

자연(일반) 계시

그럼, 만물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는가?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첫째는 만물의 존재 자체가 창조주의 존재

를 증명한다(자연신학적 증명). 둘째는 만물과 같은 결과물이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최초의 원인(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우주론적 증명). 셋째는 불완전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신(神)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존재론적 증명). 넷째는 만물에 제각각 존재목적이 있는 것은 고도의 지적 설계자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목적론적 증명). 다섯째는 인간에게 도덕법칙이 있는 것은 그것의 원천이신 신(神)의 존재를 증명한다(도덕적 증명).

갈릴레오(Galileo Galilei/1564-1642)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한 권은 자연이란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란 책에서 배운다.”고 하였다. 그렇다. 자연은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는 보편적인 계시이다. 성경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기록한 책이라면, 자연은 창조 과정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주는 계시(啓示)들이다.

한편 대(大) 진화(進化) 옹호론자들은 자연은 어떤 형태로든 신(神)의 존재를 계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연한 대폭발로 우주가 생성되었고,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면서 강자가 살아남는 자연선택이 생물의 종(種)의 진화를 진척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설에 대해서 소(小) 진화(進化)를 수용하는 창조론자들은 대(大) 진화(進化)를 수용할만한 확고한 자연적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파리는 언제나 파리이고, 원숭이는 언제나 원숭이였듯이 유전학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들의 태아가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것은 진화를 입증하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적 설계를 입증한다고 믿는다. 물론 이것도 과학적 결론은 아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자연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신념은 일종의 신앙고백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만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강조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이다. 칼 바르트는 자연 계시로써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전도의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에 관한 사도들의 설교뿐이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밝혔듯이 칼 바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로마서 1장 22-23절의 말씀대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이유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 계시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자연 계시 또는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철학적-신학논증으로써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곧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설 자로 선택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죄 범한 인간에게 영생의 축복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히려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기로 결정하셨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당신께서 받는 대신에 당신의 몫인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갖춘 고등한 동물로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신 분이시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도전과 모독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신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면서, 인간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찾고 계신 분이시다. 오류와 실수투성인 돌아온 탕자들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내는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설 자로 선택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시고,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다.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흘린 보혈이었다.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읽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9. 우상숭배(롬 1:21-23)

우상의 정의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가 십계명의 제1-2계명에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23절에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마법에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우상은 피조물을 신격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2천 년 전 그리스 로마시대에는 신(神)들이 무려 3만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 신들은 대부분 보통명사들을 신격화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번개는 제우스(Zeus), 지하세계는 하데스(Hades), 태양은 헬리오스(Helios), 지혜는 아테나(Athena), 승리는 니케(Nike, 나이키), 정욕은 에로스(Eros), 폭력은 비아(Bia), 권력은 크라토스(Cratos), 영혼은 프시케(Psyche), 아름다움은 카리스(Charis) 등이었다.

둘째, 우상은 어떤 이념, 편견, 가치관, 세계관 등을 절대시한 것이다. 철학자 베이컨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편견을 절대시하는 종족우상, 우물 안치럼 좁은 동굴에 갇혀 넓은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데서 생긴 편견을 절대시하는 동굴우상, 연극을 보면서 허구에 미혹되듯이 잘못된 논증이나 학설에서 생긴 편견을 절대시하는 극장우상, 시장에서 조심성 없이 주고받는 여론에서 생긴 편견을 절대시하는 시장우상을 언급한바 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변화를 거부하면서 일시적인 우월성이나 창조성을 향구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교만을 우상이라고 하였다.

셋째, 우상은 소유를 신격화한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이익창출을 위한 수익성, 공리성, 실용성이 우상이 되고, 시장경제가

전지전능한 신(神)처럼 숭배되는 것을 산업종교라 불렀고, “산업종교에서의 신성함은 오직 노동, 재산, 이익, 권력뿐이다.”고 하였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삶이나>(김제 옮김, 두풍)에서 “우상이란 우린 자신이 만들고 우리 자신의 힘을 투영시켜서 우리 자신을 메마르게 하는 하나의 ‘사물’이다.”고 하였다. 또 “우상은 하나의 사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것에 복종함으로써 그것은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고 하면서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상을 부정하는 하나님,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신(神)을 (그런 값싼 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이다.”고 하였다. 인간이 손에 넣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인간적인 능력을 발휘케 하여 인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종교”는 존재 중심의 순교자적 종교로써 나눠주고 나눠 갖는 참 신(神)을 섬기는 종교인 반면, “인간의 성장을 마비시키는 종교”는 소유 중심의 영웅적 종교로써 약탈하고 강요하는 거짓종교이다. 따라서 존재 중심으로 사느냐, 소유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과 나눔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 또는 재산의 소유를 숭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란 것이 에리히 프롬의 주장이다(박찬국,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철학과 현실사).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우상숭배에는 반드시 업보(네메시스)가 따랐다고 경고하였다.

우상의 마법

바울은 로마서 1장 21-23절에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마법에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우상의 마법은 과연 무엇인가? 신학자 하비 콕스는 <세속 도시>에서 세 가지 우상의 마법을 설명하였다. 첫째, 자연(피조물)을 숭배대상으로 삼게 하는 것; 둘째, 통치자의 권

력을 신성시하게 하는 것; 셋째는 유한한 가치를 절대시 하게 하는 것을 우상의 마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십계명의 제1-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자연으로부터 구별시키고, 인간을 자연의 마력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며, 만인을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을 정치권력의 족쇄와 편협하고 폐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비 콕스는 인간이 이런 우상의 마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컬어 세속화라고 불렀다.

지금 이 세속화가 거세게 일고 있는 지역이 중동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이슬람종교를 국교로 믿는 국가들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한 독재 철권정치아래 놓여 있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한 노점상 청년의 분신자살로 시작된 민주화시위는 인근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로 확산되었고, 예멘, 바레인, 시리아로 번졌다. 이는 1970년 11월에 청계천 소재 봉재공장에서 일하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인권회복, 즉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 달라”며 분신자살한 전태일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에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전태일 사건이 소유숭배, мам문숭배라는 우상의 마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노동운동이었다면, 작금의 중동사건은 권력숭배라는 우상의 마법에서 벗어나려는 민주화운동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볼 수 있다면, 먼 과거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마법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계곡과 수풀 속은 물론이고, 물속과 공기 중에 귀신들로 가득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무당과 심령술사들, 심지어 김기동의 귀신론을 따르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기독교가 지중해연안 세계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 인들은 3만이 넘는 우상들을 믿었고, 각종 신전들을 세워 제물을 바쳤다. 동양인들은 아직까지도 바위나 나무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강이나 바다에 혹은 나무에 제물을 바치기도 한다. 그로 인해서 정령들을 숭배하고 굿을 하는 무교가 생기고, 다신론

과 범신론이 나왔다. 또 조상신을 섬기는 유교와 돌부처에 절하는 불교가 성행하였다. 유교와 불교의 본래 의도가 조상신을 섬기고 돌부처에 소원을 비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교와의 혼합을 뿌리치지지는 못했다. 기복종교인 무교는 마치 매캐한 연기처럼 틈만 있으면 어디든 비집고 스며들어 사람들의 영혼에 호흡곤란을 일으켜왔다. 동일한 사상과 주술적 행동들이 미주대륙의 인디언들과 아프리카대륙의 흑인들에게도 있었다. 그들은 존재하는 것에는 무엇에든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돕는 잡신들이 있다고 믿었다. 이 잡신들을 조종하고 이용하여 그들의 마력으로 병을 고치고 원한을 산 가문이나 부족의 원수를 갚는 데 쓰기를 원하였다. 이런 주술적 마법이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든 있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주술적 마법에 걸려있었다.

마법의 해독제

이 주술적 마법에서 제일 먼저 깨어난 민족이 히브리민족이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20장 3-5절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자 하비콕스는 히브리인들을 우상의 마법에서 벗어나게 한 해독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

첫째, 창조신앙이다. 성경의 창조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절대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믿음은 이 자연세계를 피조물로 인식하게 하며, 자연의 마법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둘째, 출애굽 사건이다. 히브리인들의 이집트 대탈출사건은 정치권력의 신성화 혹은 절대화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들 앞에 당당하게 맞

섰던 것처럼 권력의 마법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셋째, 시내산 계약이다. 시내산 계약은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섬긴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시내산 계약은 인간을 가치의 마법에서 해방한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거부하시는 것은 종교문화적인 우상들에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마력적 인간의 전설과 동물의 우화가 없다.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주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사회에 과학기술문명을 가능케 하였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물질숭배의 마법에서 풀려나게 하였다.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이고, 절대 권력이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이든, 귀신이든, 천사든, 재물이든, 권세든, 명예든 모두 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외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이 우주상에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외의 것은 영이든 육이든 물질이든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못된다. 물욕, 명예욕, 권세욕, 소유욕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이다. 모든 권세와 명예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물질 또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정신, 이것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정신이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오해하여 잘못 실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대교와 유대주의이다. 목욕물과 함께 갓난아기를 내다버리듯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인본주의를 내다버린 잘못된 신본주의이다. 우상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위적 율타리법과 관습법을 얹힌 잘못된 율법주의이다. 인간이 우상과 그 마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세속화 혹은 비신화화라 부르고, 세속화를 지향하는 인본주의를 세속주의라 부른다. 대표적인 세속주의가 무신론에 입각한 세속인본주의이다. 목욕물과 함께 갓난아기를 내다버리듯이, 우상과 함께 하나님까지 내다버린 잘못된 세속주의이다.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을 앗힌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불러온 잘못된 세속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것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신분주의이다.

10. 내버려두심(롬 1:24-32)

하나님의 내버려두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또는 부끄러운 욕심에 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내버려두셨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의지를 보여준다. 허락의지란 인간이 결정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 하나님의 허락의지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하나님의 허락의지에 표현된 내버려두심의 의미는 보복정의이다.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에 상응하는 보응을 말한다. 인간이 완전하게 살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오류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탕자처럼 자신을 제어할 방법인 신앙에서 떠나면 인간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끌려 불의하고 추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당연한 귀결에 대한 정당한 보응이 멸망이다.

둘째, 하나님의 허락의지에 나타난 내버려두심의 또 다른 의미는 칼뱅이 말한 '유기(遺棄)'가 아니라,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기다림'이다.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상속을 받아 독립하고자 했을 때, 이를 허락하였고, 집을 떠난 탕자가 방탕한 생활의 결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동안 아버지는 집나간 탕자를 걱정하며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의 목적이 인간타락에 대한 심판과 보응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만일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의 목적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는 것뿐이라면, 굳이 하나님

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의 목적이 칼뱅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이 요구하는 욕구로부터 오류와 실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인간의 오류와 실수에 일일이 보응하시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지므로 이를 특정시간 즉 하나님이 정(定)한 시간까지 참으셨다가 심판하시게 된다. 책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본능이 요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신다. 이 허락의 시간이 하나님으로서는 인간들의 통회를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다. 분노와 격분의 시간이 아니라, 집나간 탕자의 아버지처럼 연민과 애정의 시간이다. 노아시대의 홍수심판과 아브라함시대의 유향불 심판은 모든 기다림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에 이뤄진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탕자가 경험했듯이 고통의 시간이요, 시련의 시간이며, 회개의 시간이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 기회의 시간을 놓치게 되면 홍수심판과 유향불 심판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죄지을 성질

인간은 근본이 선한가, 악한가? 왜 인간은 타락하는가? 왜 인간은 죄인이 되는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인가? 죄를 지을 성질을 타고나기 때문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해답은 인간이 피조물이란 점에 있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

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것들이 모두 보시기에 좋았다고 친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근본이 선하다는 뜻이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세상 만물은 근본이 선하고 악하지 않다. 그러면 인간을 비롯하여 세상은 왜 타락하였는가?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조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잘못 만들었거나 그 만드신 것이 미완성이어서가 아니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것은 신(神)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처럼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 것이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을 성질을 갖고 태어난다. 그 죄를 지을 성질은 모든 피조물의 특성이다. 특히 인간이나 천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영성(靈性)을 가진 존재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담과 이브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어떤 형태의 죄를 갖지 않았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선악과나무는 전혀 선이나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란 점이다.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가운데 한 나무였을 뿐이며, 동산 중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의 증거로 삼기에 아주 적합했을 뿐이다.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했고, 보암직했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것이었다. 인간의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훌륭한 나무였다. 그 나무에는 아무런 매력도 숨어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나무에 불과했다.

둘째, 아담과 이브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들이 악하거나 타락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냥 불완전한 인간들이었을 뿐이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되어 죄인된 것은

하나님께 먹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한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을 어겼으므로 죄인이 된 것이다. 법이 없었으면, 죄도 없었을 테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관계유지를 위해서 합의에 의한 계약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왜 인간은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가? 죄를 지을 성질을 타고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성질을 갖고 난다. 그것이 육체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신(神)일뿐 아니라, 육체가 없으시지만, 모든 피조 세계는 육체(형체)를 갖고 태어난다. 이 육체는 유한하며, 생존 욕구에 필요한 본능(本能)을 갖는다. 이 본능은 필연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본능이 선택의 기로, 즉 옳고 그름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성질이다.

본능(本能)

죄 지을 성질을 가진 본능은 그러면 악한가? 그렇지 않다. 본능은 모든 동식물이 갖는 일종의 유전적 생존능력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다. 동물이 본능에 충실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는 계약법을 만들 수 있는 인간들에게 국한된다. 동물이 본능에 충실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법이 있고, 법에 직면하여 본능을 통제할 이성(理性)이 있다. 이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다. 인간에게는 동물의 것보다 특출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이 별도로 더 있다. 그러나 이 이성이란 것도 피조물의 범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 그리고 매번 본능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은 정한 심판의 때까지 인간의 범죄를 내버려두신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 된다. 인간은 1-2세 무렵부터 자의식을 갖는다고 한다. 자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인간

은 옳고 그름을 부모로부터 배우며 자란다. 부모의 말을 어겼을 때 아이들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책망을 듣거나 매 맞는 것을 두려워한다.

신학적으로 갓난아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의식조차 없는 갓난아이에게 죄의식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죄 지을 성질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이미 죄인의 범주에 속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즉 모든 인간이 본능을 지닌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는 점에서 조상들의 죄를 타고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피조물은 불완전하고 부족하며, 이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1-2년간의 시간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학적으로도 아담이 얼마나 오랫동안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잘 버텨는가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선악과를 먹었다가 이슈가 된다. 죄를 모르는 갓난아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갓난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모르고 지냈느냐가 이슈가 아니라, 그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죄인이 된다가 신학의 이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론적으로 갓난아이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가 죄인인 셈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비록 자의식이 없던 갓난아이 때였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이기보다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자의식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또는 부끄러운 욕심에 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자로 만드시고 그로부터 배반당하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망정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은 실로 엄청난 희생이며 위대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희생과 기다림과 사랑에 기인한다.

11. 하나님의 심판(롬 2:1-16)

하나님의 심판의 특성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맥을 같이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을 교훈하듯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을 교훈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맥을 같이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나 사단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재앙과 동일한 개념이다. 계시록 6장 9-11절을 보면, 박해를 받고 순교한 자들이 주님께 탄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날까지 잠시 동안 참고 기다려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계13:10, 14:12).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구원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던(계 13:6) 적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끔찍한 재앙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회개의 기회는 일시적으로 타락한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진다. 계시록에는 배교한 신자들과 적대자들 모두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계 2:5,16,21-22, 3:3,19, 9:20-21, 14:7, 16:9,11,15).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기간이 자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고통과 시련과 인내의 기간이 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시련은 반드시 끝나게 되고, 참고 믿음을 지킨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 때문에 반드시 시행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는데 있다. 로마서 2장 4-5절은 이렇게 말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 도다.” 또 6-8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 날에 남녀노소빈부귀천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경고하신다.

자기 백성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때의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잘못된 자녀에게 회초리

를 드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그것이 항상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니다. 심한 경우 이스라엘이 외침으로 멸망하기도 했다. 북이스라엘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왕국도 주전 586년에 망하였다. 그러나 재앙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 끝내 또 수차례의 경고와 회개촉구가 있고 난 다음에 닥쳤다. 재앙에 대한 전조는 항상 있었다. 문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을 멸시한데 있었다. 재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하라는 경고를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주신다. 이집트에 열 가지씩이나 재앙이 내린 것도, 약한 재앙으로부터 점차 강한 재앙으로 강도를 높인 것도 회개하라는 경고였다.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모두 멸시하였다. 남북이스라엘 왕국들이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와 회개촉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화를 면할 수 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 복을 주기 위함이지, 재앙을 내려 괴롭히려함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판의 목적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은 그들이 “목이 뻗뻗한 백성”(출 32:9, 34:9), “목이 곧은 백성”(출 33:3,5, 신 9:6,13) 혹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행 7:51)이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한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회개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그렇더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한 후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재앙의

수령에서 구원하여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 혹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었다. 비록 회개치 않아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또 재앙을 당한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구약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같은 신명기 역사서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기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상하와 같은 역대기 역사서들이 유다왕국의 궁극적인 회복과 메시아 도래의 희망을 기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이고 훈계적이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환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대세력에 내리는 재앙이다. 이 경우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적대세력은 대재앙을 겪는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다. 계시록에 설명된 최후심판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이 이 범주에 속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앞의 사건들과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노아 때의 홍수심판과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사건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 거주하는 히브리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열 가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이집트 백성이었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었다. 계시록의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재앙들은 장차 온갖 시련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게 내리는 재앙들이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의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의 기간은 성도들에게 시련기요 단련기요 시험기간이다. 성도들은 인내로써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주의 재림 직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사건을 예시한 사건들이 노아의 홍수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다. 노아의 식구들은 준비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고, 롯과 딸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된 때가 차야 도래하기 때문에 이때가 올 때까지 성도들은 인내로써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5-3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였고, 계시록 14장 12절도 우리 성도들이 인내로써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춘

향전에서 춘향이는 정절을 지키다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기다리던 이도령이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불현듯 나타나 악의 무리를 징계한 후에 성춘향을 신부로 맞이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보상하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불현듯이 나타나실 것이다.

12. 율법의 문제(롬 2:17-29)

신본과 인본

윤리학에서 도덕법의 기초를 신본(神本)에 뒀느냐, 인본(人本)에 뒀느냐에 따라서 입장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절대주의(어거스틴, 루터)는 신본에 도덕법의 기초를 두고 있고, 공리주의(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실용주의(존 듀이), 상황주의(조셉 플레처)는 인본에 두고 있다. 한편 절대주의자인 철학자 칸트는 도덕법의 기초를 인간의 이성에 둔다. 공리주의, 실용주의, 상황주의는 이성을 도구로 취급하지만, 칸트는 순수 실천 이성으로 여긴다.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할 것을 주장한다. 사람 이외에 어떤 이익이나 목적도 도덕법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인간을 이익의 수단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인본주의자였다.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 실용주의자 듀이, 상황주의자 플레처도 인본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 것을 막지 못했다. 통하는 것, 돈 되는 것, 성공적인 것들을 유용성, 효용성, 실용성이란 이름으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적 기초가 인본에서 출발했지만 인간이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점에서 칸트의 절대주의는 좋은 인본주의이고, 공리주의, 실용주의, 상황주의는 나쁜 인본주의라 할 수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신본주의에서 비롯된다.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은 모두가 신본주의자들이요 절대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왜 다뤘을까? 동일한 신본주의요 절대주의였더라도 예수님은 인간을 목적으로 삼았고, 유대주의자들은 수단으로 삼았다. 예수님에게 율법은 인간

에게 유익을 주는 계명들이었지만,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이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계명(미츠보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자위적으로 만든 율타리(계자이라)법과 관습(타카나, 민하그)법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들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이 자위적으로 만든 율타리법과 관습법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을 목적으로 삼았던 예수님의 절대주의는 좋은 신본주의이고, 유대주의자들의 절대주의는 나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본이든 인본이든 하나님이든 인간이든 목적이 되면 좋은 것이고, 수단이 되면 나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되고,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아니하면, 로마서 2장 17-19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익의 수단이 되며,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이익의 수단이 되면, 21-24절의 말씀대로, 남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자신은 지키지 않으며,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모독을 받는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인간을 위한 것인가? 종교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율법도 종교도 모두 인간을 위

한 것이다. 율법이나 종교나 인간을 위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인간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시지, 영광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와 경배를 받아야할 존귀한 분으로 섬겨야지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하고,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할 예배와 경배를 드리되, 이익의 수단이 아닌, 예배와 경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주시되,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셨으므로, 율법은 인간의 삶에 행복의 도구가 되어야지 억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신다. 인간의 존재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강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목적일 뿐이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셨다면, 그 수단은 실패로 끝난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영광은 고사하고 배신과 굴욕을 당하시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골고다의 십자가이다. 동시에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 받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고,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증거이다. 배신과 굴욕을 당하실 만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정,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셨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꾀하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이시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되, 부모의 재산을 바라고 한다면,

부모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바라는 것 없이 진심으로 효성을 다한다면, 부모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행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도 인간도 아닌 율법을 목적으로 삼은데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계명이외에 그들이 자위적으로 만든 수많은 법들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도 인간도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섬긴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법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렸다. 인간을 해방시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할례의 의미

유대인 남성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있다는 흔적을 몸에 표시하는 할례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의식(브리트 밀라)을 통해서 유대인 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열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의식을 진행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을 갖기 위함이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선민서약의 내용이라면,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이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일 뿐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언약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가 언약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2장 25-27절에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할례의 흔적은 유일신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의 표시였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따라서 참 신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에 새긴 ‘할례의 표’가 아니라, ‘심비(心碑)의 표,’ 곧 ‘예수의 흔적’임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고 하였다.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본질보다는 의식, 의미보다는 형식, 정신보다는 문자에 치우치는데 있다.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들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항상 본질과 내면에 관한 것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의 태도는 겉껍데기와 허례의식(외식)에 관한 것이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다. 최선을 다해서 지켰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행동은 알맹이가 없는 겉껍데기 허례의식에 불과했다. 안식일 법은 물론이고, 손 씻기 법과 그릇 씻기 법 등이 다 형식에 치우친 것이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들에 노예가 되어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율법에 매여 정의(義)와 자비(仁)와 신실함(信)을 버린 자들(마 23:23),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자들(마 23:25), 소경된 자들(마 23:26), 회칠한 무덤(마 23:27), 외식하는 자들(막 7:6),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막 7:7),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막 7:8-9),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막 7:13),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막 8:18)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은 신본인 척하지만 실상은 인본에 치우친데 있다. 진정한 신본은 인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본을 이유로 인본을 말살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간을 속박하는데 있다.

13. 인간의 숙명(롬 3:1-20)

유대인의 나옴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하였다. 그런 바울이 율법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만들어 지킨 율타리(게자이라)법과 관습(타카나, 민하그)법에 얽매인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였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이고, 언약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의 유익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토라)이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고,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있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유익이 된다. 약속이라 함은 문자적으로 가나안땅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땅을 자기 민족에 대한 배타적이고 문자적인 약속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으로 이해하거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약속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했다. 그렇다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사명이 이방인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법, 손 씻기법, 그릇 씻기법, 음식법과 같은 각종 율타리법과 관습법들을 만들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차단하였다.

비록 율법과 할례가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배타적으로 유대인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율법이 100퍼센트 완벽하게 지켜질 때 비로소 할례가 효력을 갖지, 율법이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할례의 효력은 정지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일 뿐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언약의 효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못하느냐가 언약의 효력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눈물겹도록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 노력과 성의만 따진다면, 백점만 점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오류와 실수를 피하기 어려운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를 피하기 어렵다. 또 율법의 특성상 한 가지 법만 어겨도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바울의 논증에 설득력이 있다. 또 이런 점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특별이 다를 게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는 민족의 차별이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만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러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고 묻고, 9-12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다.

인간의 숙명

인간의 문제는 피조물로서 육체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인간이 오류와 실수는 물론이고,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육체에 있다. 피조물의 특징인 육체의 불완전함은 어찌해볼 수 없는 숙명이다.

인간이 피조물이란 점에 인간불행의 원인이 있다. 신(神)이라

면 불행해질 리가 없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자 필연적인 운명이다. 인간은 오류와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죄인일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이 타락했거나 악(惡)해서이기보다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불완전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도덕법을 지키려는 책임 의식을 갖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고, 사회계약으로써 도덕법을 의식하게 된다. 죄의식은 인간에게 책임의식은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서 생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이고, 육체에는 기본욕구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성(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지만, 이것들은 말 그대로 형상(形象)일 뿐, 신적(神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능의 욕구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 이성이 본능을 완전하게 제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세속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신적 존재나 기적을 부정하면서 믿을 것이라곤 인간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인간에게 이성과 지성이 있다는 식이다. 인본주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인본주의가 있고, 세속인본주의가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인본주의의 표상이다.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인본주의자이다. 그러나 세속인본주의자들은 신적 존재나 신이 인간생활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과 심판도 믿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진화론은 신뢰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이성론(합리론)자 혹은 회의론자라고 부른다.

버펄로 소재 뉴욕 주립대 철학교수 폴 쿠르츠(Paul Kurtz)가 1980년에 초안한 <세속인본주의자 선언>을 보면, 인간의 문제

들을 해결할 인간 자신의 능력들을 믿는다고 되어 있다.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이성과 민주정치와 자유이다. 인간은 자유하며,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한다. 이성과 과학은 인간의 문제들을 쉽사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성과 과학은 인간지식에 크게 공헌할 수 있고,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지성의 함양을 대신할 그 무엇도 없다고 말한다. 세속인본주의는 신뢰를 신의 가호에 두지 않고 인간지성에 둔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도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구세주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피로 얼룩진 인류역사는 인간이 결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악한 인간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운명

인간에게는 자유도 있고, 운명도 있다. 인간은 운명의 문을 여닫을 수 없다.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운명의 문을 여닫지 않는다. 만일에 하나님이 운명의 문을 여닫으신다면, 그 문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닌 게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한 일을 번복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류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결정은 완벽해서 번복할 일을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함부로 특히 나쁜 일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신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겐 굳게 닫힌 운명보다 활짝 열린 자유와 기회가 더 많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유와 기회를 선용해서 발전과 유익을 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와 기회를 악용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다. 자유란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만일 운전자가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거나 보내온 문자를

읽는다면, 그 행위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대가는 자유를 악용한 사람이 치러야한다.

인간에게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만, 자유를 누린 다음에는 반드시 선악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부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인간에겐 운명이란 것이 있다. 운명이란 마치 굳게 닫힌 문과 같아서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자연법칙이다. 자연법칙은 엔트로피법칙 또는 제2열역학법칙으로써 죽음의 법칙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죽는다. 설사 생명이 없더라도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썩거나 병들거나 소모되어 사라진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볼 수 없는 운명이다.

죽음은 운명이지만 수명은 운명이 아니다. 인간은 주어진 자유와 기회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수명을 늘린다는지, 노화와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조물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죽음이다.

예전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운명처럼 생각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식물의 유전자 조작은 물론이고, 인간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맞춤형 아기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이다. 타고난 신체를 고치는 성형은 유전자 조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기술이다.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능력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운명이다. 반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많은 자유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점이다. 이 자유와 기회를 세속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을 신뢰하는 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는 점은 불완전 인간이 반드시 믿고 신뢰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다.

14. 복음의 특징들(롬 3:21-24)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대로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은 죽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이 점을 강조한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서 출발한다. 그리스의 파르나소스 산 중턱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배꼽(움팔로스)으로 믿었던 델포이가 있었고, 그곳에 아폴론 신이 인간들의 운명을 맡긴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 상인방에 “너 자신을 알라”는 경구가 새겨져 있었다.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는 “너 자신의 운명을 알라”이고, 운명은 죽음을 뜻하였다. 신(神)은 죽지 않지만,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다. 이것을 알고 신 앞에서 겸손 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신에게 도전하면 반드시 응보(네메시스)가 따른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교훈이다. 신의 영광에 도전했던 벨레로폰은 천마 페가수스에서 떨어져 절름발이와 장님이 되었고, 여신으로 착각한 니오베는 남편과 열네 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분노와 슬픔에 찬 모습으로 돌이 되고 말았다.

고대로부터 유럽인들은 지상낙원 아르카디아(Arcadia)를 동경하였다.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은 17세기에 <아르카디아의 목동들>을 남겼는데, 그림의 내용은 이렇다. 지상낙원 아르카디아에서 세 명의 목동들이 무덤 한

개를 발견하였다.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아르카디아에도 있다”(Et in Arcadia Ego). 이 말은 지상낙원 아르카디아에도 죽음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한 목동은 묘비에 기대 선채 사색에 잠겼고, 다른 목동은 한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손가락으로 묘비명을 되짚어본다. 또 다른 목동은 우수에 잠긴 눈으로 뒤에 선 여인(역사의 알레고리)을 돌아보며 손가락으로 묘비를 가리킨다. “이게 사실인가?” 목동의 어깨에 손을 얹은 엄숙한 여인(역사)이 주는 답은 간단명료하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많고, 일평생 누린 쾌락이 아무리 클지라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히 9:27)는 것이다.



믿음만이 인간의 미래를 보장한다. 인간의 이성도 과학도 율법도 아니다. 율법들을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데 있다. 또 율법주의자들뿐 아니라 합리주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보다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신뢰한데 잘못이 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무식에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값을 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는 것이다(롬 10:9).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보다는 회개하는 마음을 보신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신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신다.

차별 없이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무식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천국행 통행증에는 그 어떤 말도 적혀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다. 국적도 신분도 피부색도 나이도 학력도 적혀있지 않다.

하나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묻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18세기말이후 기독교복음을 받아드린 조선천주교인들은 신분차별을 철폐하였다. 교인들은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이니 상놈이니 하는 신분을 따지지 않았다. 황일광이란 백정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을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보냈다. 그런 그가 기독교인이 되자, 교인들은 그를 친형제처럼 대우하였다. 그는 농담조로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해 주기 때문에 내게는 이 세상에 하나, 또 후세에 하나, 이렇게 천당 두 개가 있다."고 하였다. 1800년에 정조 대왕이 승하하자마자 정순왕후와 흥낙안이 이끄는 북인 벽파들이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남인 시파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천주교를 탄압할 당시, 그 죄목들 가운데 한 가지가 천국신앙으로 사회개혁을 꾀하고, 서로를 교우라고 부르며, 양반과 상놈의 신분 타파로 반상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의 원수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첩의 자식을 서자라 하여 좌족(左族), 반사(半士), 사점박이 등으로 천대받고 과거도 보지 못하고 제사와 상

속에서도 소외 받기가 다반사였다. 19세기 초엽 신자가 비신자를 전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컸던 고층이 다름 아닌 양반 상놈, 적자 서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은 계급으로 인식하는 기독교의 평등사상이었다. 천당은 좁고 입구도 바늘구멍 같았던데 어떻게 상놈이나 서자가 또 미천한 계집이 들어갈 틈이 있겠느냐는 것이 믿음을 외면하는 이유였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동원된 선교 도구가 프랑스 신부들이 신고 들어온 양말이었다. “믿음이란 지극히 공평한 것으로 그 앞에서는 양반도 상놈도 지아비도 지어미도 또 어른도 아이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양말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어 어느 누구의 발에도 신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라고 말하고 양말을 신겨만 보이면 손쉽게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1839년에 순교한 신대보(神大輔)가 샤스탕 신부에게 부친 편지 가운데 적혀 있다.

바울서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출신의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친 죄수였다. 법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F자를 새기고 채찍을 맞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했고,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서 영접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차별이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일 뿐이다.

로마서 3장 21-24절뿐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신분 색깔의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값을 쳐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는 것이다. 복음의 특징은 평등이다.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천국행 통행증에는 값이 없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돈이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법정용어이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고하는 것과 같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신다. 무죄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의인”으로 대우하신다. 여기서 ‘무죄선언’과 ‘의인대우’는 신자(信者)의 죄나 죄지를 성질이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고, 말 그대로 대우받고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을 ‘간주된 의’ 혹은 ‘전가된 의’라고 말한다.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義)와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의(義)가 믿는 자에게 온라인송금처럼 인간의 의로 옮겨진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의 순종의 의가 값없이 신자에게 옮겨지고 신자의 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된 의(義)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죄 사함과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뜻한다.

유대인들은 시민권을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개종자들에 국한시켰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인들은 시민권을 양가 부모가 모두 아테네인의 혈통을 가진 자들에 국한시켰다. 고대 로마인들은 시민권을 제국의 정신을 공유한 자들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그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었고, 212년 카라칼라 황제의 ‘안토니아누스 칙령’(Constitutio Antoniana)이 발표되기 전까지 속주민들의 대부분은 로마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종족 언어 혈통 신분에 상관없이 오직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었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시민과 속주민과의 차별을 없애고, 제국내의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시민권을 준 카라칼라 황제의 212년 '안토니아누스 칙령'을 로마제국이 붕괴되는 원인으로 보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자매라는 박애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준다는 기독교복음의 선포는 2천년이 넘도록 세계정신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자랑삼고, 할례와 개종침례를 받으며, 613개의 계명과 랍비들이 만든 수많은 율타리법들과 관습법들을 지키는 유대교 신자는 오늘날 전 세계에 5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조차도 유대인들의 3-40퍼센트만이 믿는 민족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값진 구원을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차별 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양반이나 상놈의 구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특권을, 복음의 무한한 가치를, 자칫 값싼 은혜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바른 믿음과 실천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15. 화목제물(롬 3:25)

우리민족의 화목제물 개념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는데, 그 효력은 그것을 믿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때 나타난다는 뜻이다.

‘화목’(καταλλαγή)은 중재(仲裁)용어이다. 분단의 벽을 헐고 적대감정을 풀어 평화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적대감(=하나님의 진노), 인간끼리의 적대감, 자연을 착취하고 고갈시킨 데서 오는 적대감이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제물은 선물(贖物)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제물(祭物)이란 본래 죄와 허물이 큰 인간이 신(神)에게 바치는 뇌물(賂物)을 말한다. 신(神)이 인간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제물을 바치겠는가? 제물을 바쳐야 할 쪽은 죄와 허물이 큰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5절은 그 어떤 형태의 죄도 허물도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에게 제물로 주셨다고 말한다. 이 제물이 인간에게는 더 없이 큰 구원의 선물이 되는 이유이다.

우리민족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신(神)의 선물(贖物)로 여겼다. 비록 제사상의 음식이 인간이 차린 음식이고, 다분히 잘 보살펴달라는 뇌물의 성격을 띤 것이지만, 신(神)은 인간들의 지성(至誠)만 받고, 음식은 고스란히 예배공동체에 물리신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물이었던 것이다. 준비한 정성이 지극할수록 잘 차려진 음식은 예배자의 것이 된다. 같은 원리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의 결과는 예배자의 몫이 된다. 이렇게 제사 음식은 신이 내린 선물이고, 예배공동체에 대한 신의 뜻(神意)이 담긴 음식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반드시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만 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복덕방'이란 말이 바로 이 선물을 나누던 장소를 뜻했다. 이 말이 토지나 가옥 중개업 소란 뜻으로 한동안 사용되기는 했지만, 먼 옛날의 복덕방은 각종 부락제 때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옮겨와 나눠 먹던 장소였다. 먹고 마심으로 복을 받고(飲福), 먹고 마심으로 덕담을 나누던(飲德) 신성한 장소가 복덕방이었던 것이다. 복덕방에서 선물을 나누는 행위는 신의 뜻을 나누는 행위였고, 한 공동체의 결속과 연대를 신의 명령(神命)으로 받아들였던 엄숙한 행위였다. 제물은 이처럼 마을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공동 운명체임을 자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살코기만이 제물로 쓰인 것은 아니다. 떡(빵)과 술(포도주)이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었다. 우리민족의 세시민속(歲時民俗) 가운데 대보름 민속으로 원한을 푸는 떡(解怨餅)이란 게 있었다. 한해를 살다보면 이해(利害)에 얽히건 오해에 얽히건 간에 누군가와의 사이에 원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한 마을에 살면서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면 피차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보름 명절에 그 불편관계를 말끔히 씻기 위해서 해원 떡을 만들어 돌렸다. 이 선물은 이웃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요 6:48)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이란 뜻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다.

구약성경의 화목제물 개념

구약성경에서 화목제물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祭物)이었다. 그래서 뇌물(賂物)보다는 선물(膳物)의 성격이 강했다.

구약시절에는 네 종류의 제사방법이 있었다. 화제(火祭), 요제(搖祭), 거제(擧祭), 전제(奠祭)가 그것들이다. 화제(火祭)는 제물을 불에 태우거나 구워서 바치는 제사였고, 요제(搖祭)는 제물을 흔들어서 봉헌하는 제사였다. 거제(擧祭)는 제물을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였고, 전제(奠祭)는 피나 포도주, 또는 기름이나 물을 제물에 부어서 바치는 제사였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자신을 '관제'(灌祭)로 드린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전제'의 영적 의미가 헌신과 순교란 점을 밝혀주었다. 제물에 물을 붓는 것은 특별한 경우로써 초막절 마지막 날 새해풍년기원예배 때에 쓰였다.

구약시절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종류가 있었다.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和睦祭)와 소제(素祭)가 있었고, 의무로 드리는 속죄제(贖罪祭)와 속건제(贖愆祭, 愆=허물)가 있었다. 그리고 번제(燔祭)가 있었는데, 번제는 단독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네 가지와 함께 세트(set)로 자원해서 바치는 제사였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화제였다. 제물은 예배자의 생활형편에 따라 수소, 숫염소, 숫양,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가운데서 바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흠이 없고, 일 년이 된 수컷이어야 했다. 번제 때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몫이었고,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러나 예배자는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자기 몫이 따로 없었다. 가죽만 취했던 제사장은 번제와 함께 세트로 바치는 소제나 화목제 등을 통해서 자기 몫을 추가로 취할 수가 있었다.

자원해서 바치는 화목제(和睦祭)는 불에 태우는 화제였지만, 다 태우지 않고, 내장과 기름만 상징적으로 태웠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기위해서 무교병과 함께 드려졌다. 화목제의 특징은 예배자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진데 있었다. 동물의 가슴은 요제로 흔들고, 오른쪽 뒤 넓적다리는 거제로 높이 쳐든 다음 가죽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예배자

가 가져다가 가족친지이웃들과 더불어 그날로 다 먹어야 했고, 먹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 화목제로 바친 고기는 예배자든, 제사장이든 그것을 결코 혼자서 독식할 수 없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린 바로 그 날에 모두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와 자연관계에서까지 두루 이뤄져야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크든 작든 동물이 화목제물로써 희생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만 받으시고, 살코기는 고스란히 예배공동체의 음식물로 하사(下賜)하시어 구성원들의 관계회복에 쓰이게 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관계에서 속죄와 구원, 화목과 일치, 연대와 결속, 나눔과 친교를 위한 가장 크고 완전한 선물이 되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신약성경의 화목제물 개념

신약성경에서 화목제물(ἱλαστήριον)은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수단을 밝히는 말로써 쓰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에서 “그의 피로써”는 구원의 근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구원의 수단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말이다.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뿌리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의 통로라는 뜻이다. 이뿐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동시에 밝혀주고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표현한 말씀이다.

바울 당대의 헬라세계에서 화목제물의 개념은 죄가 큰 인간들

이 진노하는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 신들의 노여움을 달랠으로써 다가올 재앙과 형벌을 피하고자 한 노력을 뜻하였다. 제물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 뇌물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인간들이 애써 마련한 화목제물로 과연 신들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까? 다신을 믿었던 그리스 로마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까지도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란 생각과 신들이 인간이 준비한 제물을 먹거나 그 향기를 즐길 것이란 생각은 심지어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2천 년 전 사도 바울은 이 화목제물(ἱλαστήριον)의 개념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였다. 인간이 신(神)을 위해서 마련한 그 어떤 제물로도 인간의 속죄(贖罪)나 구원이 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단 한번으로 궁극적으로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시킬 화목제물이 필요하셨고, 또 그것을 친히 마련하셨다는 놀라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인간의 죄도 단 한번으로 처벌하고 구원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속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목제물이 필요하셨고, 또 그것을 친히 마련하셨다는 놀라운 지식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제물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이 바로 인간 구원의 뿌리요 근간이란 것이다. 이것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에 담긴 뜻이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인간들로부터 배신과 모독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벌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화해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인간들이 마련하는 뇌물성격의 화목제물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달래질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마련한 화목제물

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화목제물에 의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한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값없이 받아드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써 받을지를 결심하는 일은 인간의 몫이다.

16. 십자가와 하나님(롬 3:25-26)

왜 십자가를?

로마서 3장 25-26절은 십자가가 인간에게 왜 필요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다. 십자가는 모든 수직과 수평적 만남을 상징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신뢰와 신실함의 만남, 성(聖)과 속(俗)의 만남, 정의와 사랑의 만남, 주인과 노예의 만남, 지배와 피지배의 만남을 상징한다. 여기서 하나님, 신뢰, 성(聖), 정의, 주인, 지배는 수직적이고, 인간, 신실함, 속(俗), 사랑, 노예, 피지배는 수평적이다. 이들 수직과 수평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깨지고 원수가 된 관계를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관계로 만드는 만남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각각 따로 갖거나 숫자 십일(11)처럼 서로 마주보게 갖지 않으시고, 교차로처럼 혹은 열십자(十)처럼 두 속성, 즉 정의와 사랑이 겹치게 갖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본래 정의와 사랑은 경쟁적이어서 공존이 쉽지 않다. 사랑이 웃으면, 정의가 울고, 정의가 웃으면, 사랑이 운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도 고민거리가 생겼다. 배반자인 인간을 용서해 주자니, 정의가 희생되고, 죄를 벌하고 징계하자니, 사랑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동시에 그들의 죄값도 함께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셨다.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였다. 십자가는 죄인을 징계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회개한 인간을 용서한다는 측면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지난 2천 년간 십자가는 인간을 살리는 더하기(+)
표식이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1)이 되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중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는 구절은 십자가가 인간에게 왜 필요했는가를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즉 정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킬 절묘한 방법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에서 나왔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죄인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했다. 하나님도 의롭게 하셨고(Just),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다(Justifier).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

정의란 단어의 원뜻만 고려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보복정의를든 분배정의를든 정의의 원뜻만 고려한다면, 고대근동세계의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출 21:23-25) 갚는 것이 보복정의가 될 것이다. 또 유용성과 실용성에 근거하여 좋은 결과와 성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자들과 능력과 재능을 숭배하고 사유재산권을 엄격하게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의란 개념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엄청난 행운이나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의 처참한 불행조차도 분배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마 16:27, 롬 2:6, 딤후 4:14, 계 22:12)와 “죄의 값은 사형이다”(롬 1:32, 6:23)고 말씀하신대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엄격하게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징계하셔야만 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심판이 즉시 올 수도 있고, 먼 훗날에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은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만족되어진다. 행한 대로 상벌이 주어지고, 죄값에 사형언도를 내려야 하나님의 정의는 충족되어진다. 부족한 인간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저주를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사형을 받으신 것은 정의를 실현시켜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해결책이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용납지 않으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하시다. 하나님이시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게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

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고, 대속의 가능성을 지닌 완전한 신(神)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게 되실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십자가가 죄인만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십자가가 죄인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도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용납지 않고 죄값인 사형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죄인을 용서하라고 요구한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롭고 사법적인 의분을 풀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께 지불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축복이다. 사랑은 죄인이 멸망 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멸망 받기를 원치 않는다(벧후 3:9; 딤후 2:4).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되지 않는다. 이런 곤경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실 최선책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4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는 그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랑과 용서로 돌이켜 놓으셨다.

이로써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신 죄의 대가가 그분의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후 5:21). 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거저가 아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외아들을 통해서 치러야 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누워 떡먹기 식의 값싸고 쉬운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간구한 죄 사함이 응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벌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우리 죄가 단순히 씻기거나 떨어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형벌을 받음으로써 용서되어진 것이다.

<이 오랜 주님의 자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길을 찾았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무리들,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은 민초들, 소경들, 앓은뱅이들, 문둥병자들, 다섯 남편가진 여인, 38년 된 병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 등, 앞 못 보고 걷지 못했던 상하고 찢긴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 주님의 자비를 입었던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 오랜 주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고 씻기는 고침이 있기를 바란다.>

17. 이방인의 하나님(롬 3:27-31)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리고, 유대민족의 신(神)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결코 소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 우주에 한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의 큰 장점은 하나님을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믿어왔다는데 있다. 모세오경에는 '조상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12회 정도 나온다. 그만큼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식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120대 3,800년이 넘도록 믿어왔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고, 증조부가 믿었고, 증조부의 할아버지가 믿었고,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조상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해버렸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계명 이외에 안식일 법, 정결법, 음식법, 손씻기법과 같은 수많은 율타리법들과 관습법들을 만들어 방어막을 겹겹이 쳤다.

둘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막이나 성전에 가둬두고 독점하려고 했다. 유대교가 성전을 단 한 곳 예루살렘에만 둔 것도 하나님을 독점하고 가두는 처사였다. 하나님은 특정 인간이 독점한다고 독점될 분이 아니며, 가둔다고 갇히실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하려 한 것은 성전을 장악하여 백성을 통치하려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을 것이다.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성전시대에 들어서면, 성소를 둘러싼 뜰과 담이 접근을 겹겹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성소가 들어선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 하여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바깥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 하여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으며, 남성의 뜰 바깥에 유대인여성들에게만 허용되는 여성의 뜰이 있었다. 이방인들은 여성의 뜰 바깥에 있는 넓은 이방인의 뜰에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뜰과 뜰을 분리하는 담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종의 차단막,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일 년에 단 하루 출입이 허용되었다.

신약성경은 그 같은 차별의 담들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한다.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히 10:19-20)고 말한다.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을 헐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지성소의 법궤) 앞에 담대히”(히 4:16)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말한다.

이방인의 하나님

로마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 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

나님도 되신다.”라고 선언하였다.

수천 년간 조상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엄청난 신앙유산을 가진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추월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위대한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옛 언약공동체로 무시해버린 기독교신앙에 뒤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리고, 소수 유대민족의 신으로 제한해 버린 때문이 아니겠는가? ‘조상의 하나님’ 신앙이 유대민족의 결속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민족신(民族神)으로 묶어버리는 단점이 있었다. 그들 조상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소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제한될 수 없는 이 우주에 한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랜 역사와 완고한 전통 속에 있던 유대교를 뛰어넘어 기독교시대를 연 인물이 바울과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와 부름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지평을 넓혔다. 그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고 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라고도 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도 했다. 일찍이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과격적인 선언이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말한 내용이라고 했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도 했다. 여기서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란 편협한 사고에 빠진 유대인들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유

대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엡 3:8절)이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였던 비밀의 경륜”(9절)이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11절)이라고 했다. 이런 파격적인 대 선언 때문에 바울은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날마다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후 11:23).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한 분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이시란 점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7-31절에서 피력하였다.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사상이 녹아 있다. 첫째, 사랑이 많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원에는 남녀차별 신분차별 연령차별 빈부차별 민족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구원이 ‘선택’이란 이름으로 유대인에게는

열려있고, 이방인에게는 닫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행사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특정인에게는 열려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조건아래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의(義)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또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이다. 요한도 복음서 3장 16절에서 같은 말을 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누구나"와 "누구든지"는 구원의 복음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남녀 신분 연령 빈부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있다는 뜻이다.

둘째, 유대인들이 누리온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여로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미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그 증표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엄수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선택은 구원여로의 선택이 아니라, 선교도구로서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 구원여로의 선택인지, 도구로서의 선택인지를 분간해야 하며, 구원여로의 선택을 말할 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선택인지(믿음 전 선택),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인지(믿음 후 선택)를 판단해야 한다. "누구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

든지"에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조건으로 삼는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란 '믿음 후 선택'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라면, 비록 그가 공평하고 차별 없이 주어진 기회를 잡았다할지라도, 받은바 은혜가 지극히 크므로 그 같은 은혜를 입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 전 선택'을 신앙고백하게 된다.

18. 믿음의 예증(롬 4:1-25)

예표와 성취

바울은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폄하하지 않는다. 할례를 포함한 율법이 폄하될 경우는 그것들이 구원에 필수적인 요건들로 강요될 때뿐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구원이후에 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들로 이해되었다. 바울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믿음과 이미 구원을 받고난 다음 단계에서 요구되는 믿음을 구분하였는데,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행위는 이미 구원을 받고난 다음에 요구되는 순종(실천)의 믿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앞서 3장 21-31절에서 언급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예증(例證)으로써 아브라함을 증거로 내세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입은 것은 율법과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과 할례를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에 해당된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최단 430년에서 최장 6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십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할례는 그 언약의 증표였다. 따라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도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영토에 관한 것이므로 최단 430년에서 최장 645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동일하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유한하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문자적인 가나안(팔레

스타인) 땅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원하고 견고하며 안전한 천국으로 이해하였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후손을 모세 때에 짐승의 피로 맺은 시내산언약 공동체인 유대인들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다락방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로 보았다. 실체와 그림자, 원형과 모형, 성취와 예표로 비교하면서 옛 언약(구약) 공동체인 유대인들을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로 보았고, 새 언약(신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그것들의 실체와 원형과 성취로 보았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以信稱義)을 받는 자들의 예증(例證)으로 제시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다함(구원)을 받고, 후손들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였다. 여기서 후손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영토인데, 바울은 가나안 땅을 자주 ‘기업’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문자적인 이스라엘 영토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천국으로 여겼다. 또 후손을 자주 ‘후사’(상속자)란 말로 표현하면서 문자적인 유대인들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천국백성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여겼다.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후사’를 유대민족을 말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땅은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천국의 그림자요 모형이며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바울은 이 예표와 성취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분을 혈통에 의한 유대민족만의 조상으로 보지 않고, 믿음에 의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보았다.

믿음을 의로 여기심

로마서에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믿음과 선택에 관한 것이다. 믿음에는 초(初) 신자에게 요구되는 ‘구원하는 믿음’과 기(既) 신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실천)의 믿음’과 ‘교리의 믿음’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 5장까지에서 주로 초(初) 신자에게 요구되

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로마서 3장 21-31절 이후로 바울이 언급한 '율법의 행위'는 '순종(실천)의 믿음'에 해당된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시내산언약을 맺고 선민이 되었고, 선민의 의무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므로 선민의 신분유지를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선민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믿음'과 '교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된다. 바울은 로마서 5장까지 에서는 여전히 '구원하는 믿음'이 요구되는 초(初) 신자 단계를 설명하고 있고, 기(既) 신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믿음'과 '교리의 믿음'은 로마서 6장 이후에서 설명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1-5장까지에서 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구원하는 믿음'까지를 설명하였다. 로마서 4장은 그 예증으로써 아브라함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께 의(義)로 여김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5절)를 포함해서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4:3, 5, 6, 9, 11, 22, 23, 24; 창 15:6)는 표현을 4장에서만 무려 8번이나 반복하였다. 이 말은 사람의 믿음이 의(義)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의(義)가 신자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사용한 '의'(righteousness)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과는 반대된다. 유대인들의 의는 모세의 율법을 착실하게 지킨 행위, 즉 순종(실천)의 믿음에 바탕을 두나, 바울이 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신뢰하는 구원하는 믿음에 기초한다. '여기셨다'(reckoned)의 의미는 마치 어떤 사람이 은행에 큰 빚을 지고 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온라인 구좌로 송금되어 그 빚이 다 갚아진 것과 같다. 물론 여기서 송금된 돈은 갚을 의무가 전혀 없는 선물이다. 만일 그 빚을 갚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나 선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

울은 4-8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고 하였다.

예증으로 제시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행위, 즉 순종(실천)의 믿음과 무관하였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11-12절)고 하였다.

부활의 믿음으로 된 상속자

로마서 4장 13-16절은 ‘믿음을 의로 여기심’의 결과가 상속을 받게 한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상속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해준다. 그런데 이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다. 순종(실천)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고 만다는 말씀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얼마나 크게 강조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만의 약속으로 여겨졌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 모든 이방인들의 약속으로까지, 유대인들만이 상속자로 여겨졌던 것을 우리 모든 이방인들을 상속자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동일한 조건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동등한 상속자가 된다고 하였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한 ‘상속’과 ‘상속자’는 바울서신들에서 뿐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장차 올 좋은 것’ 혹은 ‘장차 올 세상’(롬 8:18, 고전 13:10, 엡 1:21, 딤후 4:8, 히 2:5, 10:1, 11:20, 13:14)이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다. 그것을 바울은 ‘기업’(엡 1:11, 14, 18, 5:5, 골 1:12, 3:24)이란 말로, 상속자를 ‘후사’(롬 4:13, 14, 16, 8:17, 딤후 3:7, 엡 3:6)란 말로 표현하였다.

로마서 4장 17-25절은 ‘후사’(상속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한다. 아브라함이 지녔던 믿음처럼, 부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예증으로써 제시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논증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17절).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18-20절).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23-25절)고 말한다. 이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예

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4-25절).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9. 희망을 이루는 연단(롬 5:1-11)

가나안입성을 위한 행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았다. 첫째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이고, 둘째는 그들의 영토가 될 가나안이었다. 아브라함은 이들 약속의 증표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번성과 하늘 가나안 약속의 증표가 된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430년(혹은 645년) 지난 모세의 때에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머문 215년(혹은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었고, 제1대구원사건의 메시아, 모세의 지도아래 첫 번 유월절 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데 성공하였으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시내산기슭에서 하나님과 선민언약을 맺고 그 내용으로 율법(Torah)을 받았다. 그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생활이 광야사막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히브리 민족의 40년 광야사막노정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질병과 토착민의 배척과 싸우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행군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홍해를 건너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영광의 탈출'이었고, '승리의 입성'이였다.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출애굽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언약의 내용)하고, 침례(홍해도 하) 받고, 교인(선민)이 되고, 죽어서(요단강 건너서) 천국(하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펼쳐는 천로역정(天路歷程)의 예표(豫表)요, 모형(模型)이며, 그림자이다.

히브리 민족이 겪었던 출애굽사건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대미를 장식했던 주요 사건들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종려주일 사건이고, 둘째는 고난주간사건이며, 셋째는 부활주일사건이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출애굽사건들에서 그 모형들을 갖고 있다. 출애굽사건이 가나안입성에서 성취되었다면, 주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의 중심이요 수도였다.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예루살렘과 저 하늘에 영원한 예루살렘이 있다.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후에 들어간 광야교회(옛 언약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후에 입교한 교회(새 언약공동체)에 연관성을 갖는다.

주님의 종려주일사건은 갈릴리를 떠나와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다. 이를 일컬어 '승리의 입성'(Triumphal Entry)이라고 부른다. 이 지상 예루살렘의 입성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교회에 입성한 것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아 거듭난(중생) 기쁨과 의롭다함(칭의)의 기쁨을 누리는 영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상나라인 교회에 입성한 것과 같다. 이런 맥락에서 정식으로 입교인이 되는 순간은 세상으로부터의 영광의 탈출이요, 승리의 입성이다. 이 기쁨을 묘사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홍해해변에서 히브리 민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목 놓아 외쳐 부른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를 연호한 찬송이다.

가나안입성을 바라보는 즐거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하여 광야사막에 이른 것은 최종목적지인 가나안입성을 위한 것이었다. 가나안입성 전에 히브리 민족은 40년의 준비기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옛 언약백성으로서 연단을 받았던 기간이다. 이 연단은 굶주림과 목마름

과 질병과 토착민의 배척과 싸우는 험난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 연단은 젓과 꿀이 흐르는 영광의 나라인 가나안입성을 위한 것이므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연단기간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겪었던 고난주간의 모형이요, 우리 성도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겪는 고난의 그림자였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영원한 하늘 가나안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생활을 끝낸 후에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올라 거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늘 가나안입성을 위한 연단기간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 5장 1-11절이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구원의 해변에 도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구원의 해변에 도달하였으니, 히브리 민족이 구원의 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므로 화평을 누리자는 것이다. 홍해를 건너 히브리 민족은 아직 가나안입성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바라보는 입장이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미래에 누리지 않고, 홍해를 건너 즉시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죄악세상에서 빼내어 방주로 비교되는 안전한 교회로 인도하셨으므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탈출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긴 후에는 즉시 아버지와 화평의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또 누려야 한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감히 홍해에 뛰어들어 무사히 건너 후에 광야교회에 들어간 것

처럼,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감히 물에 뛰어들어 침례를 받은 후에 교회에 입교한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사막에 들어간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광야사막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 그러므로 광야사막생활은 가나안입성을 위한 연단과정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사막에 이른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을 바라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은 교회생활이 끝이 아니며, 하늘 가나안입성을 위한 연단과정이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 가나안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한다.

가나안입성을 위한 연단

히브리 민족의 광야사막생활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질병과 토착민의 배척과 싸우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행군이였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주간의 생애는 십자가 고난의 정점이였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3-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다.”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40년 광야사막생활의 환난을 견디고 가나안입성에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난이 끝난 후에는 모두가 희망하는 하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희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이듯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하늘 가나안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희망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로 보았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다”는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 인내와 연단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야사막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님의 임재의 예표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광야사막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보증과 인침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늘 가나안에 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6-11절, 특히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풀고 화목관계가 되었으므로 하늘 가나안입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비록 환난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비록 험난하고 고달프며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서 살지만, 기뻐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기필코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도달할 것이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번민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늘 가나안을 바라고 행복해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6-8절도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고, 환난으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고 하였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느끼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은혜요, 하늘 가나안입성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즐거움이며,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다. 이 험난한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은 이처럼 하늘 가나안입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20. 원죄, 유전죄, 자연법칙(롬 5:12-14)

기독교 구원의 정점(頂點)

바울은 5장 1-1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는 여전히 환난을 겪어야 하는지, 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희망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구원은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데서 완성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세상에서 뿔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입성을 믿고 희망하는 교회공동체에 가입한 것을 말한다. 갈릴리 호수를 놓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그리했던 것처럼, 이편을 떠나 저편으로 가는 배를 탄 것과 같다. 저편 가나안에 데려다줄 배를 탔다고 해서 폭풍의 위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저편 가나안에 데려다 줄 배는 교회공동체이다. 갈릴리 호수는 세상이다. 바울이 언급한 중생(重生)과 칭의(稱義)는 바로 이 구원의 배에 오른 것이고, 순례공동체에 합류한 것을 말한다.

가나안입성의 마지막 관문(關門)은 요단강이다. 요단강은 죽음의 상징이다. 육신이 죽어야 저편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독교가 부활을 구원의 정점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어야 하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지만, 죽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부활을 받아야 소용이 있기 때문이다. 신학에서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 위한 부활을 영혼부활 혹은 영적구원, 주님 재림 시(時)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 위한 부활을 육체부활

혹은 육체구원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거듭남을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영적구원 혹은 영혼부활이라고 부른다. 이 영적구원 혹은 영혼부활은 하늘 가나안입성과 장차올 세계(올람하바, Olam Ha-Ba)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입성을 보장하는 시민권일 뿐 아니라, 육체부활과 육체구원의 약정서와 같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약정서에 기록된 보증금과 찍힌 인감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바울은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였기 때문이다. 멸망의 세계의 특징은 죄와 죽음이다. 그러나 하늘 가나안의 특징은 부활과 생명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부활과 생명의 세계로 나아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논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5장 12-21절에서 죽음과 생명의 근원 문제를 다룬다.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고, 생명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인류 최초로 죄와 죽음을 세상에 끌어들인 아담과 그것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부활과 생명을 세상에 끌어들인 예수님을 대조시켜 설명하였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이다. 원죄와 유전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12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원죄와 유전죄

아담의 원죄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란 점이다. 인간이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인간이면 반드시 한번은

죽어야하는 문제의 해답이 인간이 피조물이란 데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시며, 영원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신다. 죽지 않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죽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선악과는 먹게 되어 있다. 또 먹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에 운명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운명이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운명이 되었거나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최초로 죄가 생겼고, 또 최초로 죽음이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의 후손들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죽은 것처럼 그들의 후손들도 죽게 되는 것이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어서 죄인이 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죄만 아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 살았던 에덴동산이었다면 모르겠으나 현 우주의 상태나 법칙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주: 에덴동산이었더라도 피조물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 자연법칙 또는 열역학2법칙(엔트로피)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피조세계에서 죽음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법칙이다. 이런 죽음현상은 자연이 불완전하기 때문인데, 불완전한 것 자체가 죄가 된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가 따르고, 오류와 실수는 죄를 만든다.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죄가 유전된다고 결정하려면 꽤 긴 해설이 필요하다. 아담에서 보았듯이, 유전죄가 없이도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삿으로 죽는다. 죄지를 성질(罪性)은

아담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에 있다. 육체의 본능이 죄의 뿌리요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 본능이 아담의 범죄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능이 작동한 때문이다. 본능은 피조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면서 선과 악 모두를 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고 시간적인 문제이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운명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본능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이다. 부활한 자들의 세계에는 죄성(罪性)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유전죄와 자연법칙

바울은 로마서 5장 12-21절에서 아담의 의(義)와 그리스도의 의(義)를 대조시키고 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소개되었고, 죽음이 지배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총이 세상에 소개되었고, 생명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된 것은 무엇이든 지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넘치게 보상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본문에서 ‘더욱 넘치게’(much more)란 말을 세 번 사용하였다.

로마서 5장 12-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범죄가 시작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죄할만한 법이 없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토라(Torah) 즉 성문율법을

말한다. 이 성문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죄의 삯으로 죽음이 있었다는 말은 그 때에도 인간행위를 심판할 어떤 법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만일 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이고, 죽음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망은 죄의 삯이므로 사망은 성문율법이 없던 때의 사람들에게도 죄의 실재를 입증하고, 어떤 법의 실재를 입증한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자연(일반)계시를 이해할 만한 이성의 법과 양심의 법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성문율법이 아니더라도 이성의 법과 양심의 법으로도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인간은 율법의 정죄여부를 떠나서, 또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누구도 죄의 삯인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아담이후 죽음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아니한 갓난아기는 왜 죽는가? 자연법칙 때문인가? 아담의 죄 때문인가? 자연법칙은 아담의 죄 때문에 생겼는가? 태초부터 있었는가? 만일 죽음의 법칙(엔트로피)인 자연법칙이 아담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면, 피조물의 죽음이 아담의 죄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유전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의 죄의 결과가 자연법칙이라면, 피조물의 죽음은 범죄여부와 상관없이 죽음을 맞게 된다. 죄를 모르는 갓난아기가 병으로 죽었다면, 그 죽음은 자연법칙 때문이고, 아담의 죄 때문이란 설명이 가능해진다. 아담의 죄값이 자연법칙에 남아 죄가 없는 갓난아기까지 죽게 하였으므로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법칙이 주는 영향은 육체의 죽음에 국한되므로, 유전죄가 갓난아기의 영혼까지 해치지는 못한다. 영혼의 죽음은 자범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갓난아기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불행한 육체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자범죄가 없는 갓난아기의 영혼의 죽음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대신(對神), 대인(對人), 대물(對物)관계가 전혀 없는 갓난아기에게 하나님과의 원수 됨, 인간과의 원수 됨, 자연과의 원

수 됨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가 없으면 죄도 없다. 갓난아기는 자의식이 없으므로 자기 죄를 회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회개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선언은 육체의 죽음일 뿐, 영혼의 죽음이 포함되지 않는다. <주: 과연 자연법칙이 아담의 죄 때문인가? 신학적 설명일 뿐이지, 과학적 설명은 되지 못한다. 만들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1. 보혈(寶血)의 소급적용(溯 5:15-21)

유전죄와 육체의 죽음

우리에게 유전죄가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다. 영혼의 죽음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죄지을 성질은 아담에게도 있었듯이, 아담의 원죄나 유전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다수의 인간은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이 자범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는다. 다만 죄가 전혀 없더라도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점에서 육체의 죽음의 원인을 자연법칙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자연법칙이 아담의 원죄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죄값으로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피조물은 죄와 상관없이도 필연코 죽는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불완전하며, 불완전한 것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작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담이 죽게 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는 원죄와 유전죄를 논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은 아담의 유전죄를 인정한 신학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원죄나 유전죄의 개념을 법적인 유죄개념에서 이해하지 않고, 본능의 죄지을 성질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죄지을 성질은, 타락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처럼, 모든 육체가 가진 본질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씨앗이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은 이 씨앗을 즉 앞으로 죄를 짓게 될 성질을 죄 그 자체로 보았고, 따라서 모든 갓난아기들은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갓난아기의 육체의 죽음

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도 이 죄성(罪性)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갓난아기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죽일 수 있는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기 전인 갓난아기의 상태에서 보지 않고, 성장해서 죄를 짓게 될 미래의 결과에서 이해했던 것이다. 칼뱅은 갓난아기들이 유죄한 이유가 그들이 갖고 태어난 죄의 씨앗을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며 죄로 간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기독교강요> II,1-8). 그러나 이런 주장이 옳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고, 흠족해 하셨기 때문이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부터 육체의 본능을 소유했으므로 죄의 씨앗을 갖고 만들어진 셈인데, 죄를 짓기도 전인 죄성을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며 죄로 간주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죄를 짓지 않아서 자범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갓난아기들이 갖고 태어나는 저주, 즉 원죄의 결과는 육체의 사망과 고통이지, 영적 죽음은 아직 아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죄지을 성질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아직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아담도 흠으로 빚어진 순간 죄지을 성질을 갖고 만들어졌지만, 죄를 짓기까지는 죄인으로 취급되거나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인간의 본질과 본능은 죄의 씨앗이 될 수 있지만,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씨앗 자체가 아직 죄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류와 실수를 완벽하게 피할 수 없지만, 자의식이 없는 갓난아기에게는 죄가 될 만한 오류와 실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과 육체의 죽음

로마서 5장 15-2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아담의 죄와 죄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유전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순

종과 순종의 결과는 유전될 수 없는가? 아담보다 월등하게 위대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비교될 수 없다. 죄와 은사(free gift)는 비교될 수 없다. 사망과 생명은 비교될 수 없다. 율법과 은혜는 비교될 수 없다. 인간 아담의 범죄로 유전죄가 적용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더욱 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물이 넘친다. 그러므로 은사는 범죄에 비교될 수 없다. 은사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은 아담의 죄의 결과보다 더욱 넘치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원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월등하게 크며, 그 미치는 범위도 넓다는 뜻으로 보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원죄를 말살하여 그 범위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꾸어 말하면,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유전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 또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유전죄를 말살할 뿐 아니라, 그 은혜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보다도 월등하게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실한 것을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찾았고 또 찾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육체의 죽음이 계속되는가? 죄가 없는 갓난아기가 죽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도, 중생과 칭의로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고할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류와 실수가 없으므로 한번 약속 받은 구원이 끝까지 지켜질지라도, 여전히 성도는 이 땅에서 죽는다. 예수님 믿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한다. 로마서 5장 12-21절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았고, 그 은혜가 월등하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삯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이뤄지는 시점을 주님의 재림의 때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로마서 5장 12-21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라고 적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죽음과 죄가 없는 갓난아기들의 육체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죽음에서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의 때에 일시에 해결되도록 연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구원은 종말론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하시고 인감을 찍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한 단절과 소외의 문제에서 영적인 부활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부활은 성도들의 소망인 육체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급적용

바울은 율법이라는 특수계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믿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에 이를만한 믿음이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역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입었다고 강조하면서 믿음의 예증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하

심을 입을 수 있는가?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활의 믿음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 지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다른 많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만일 대답이 “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을 지극히 사랑하였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를만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과 상치된다. 그러나 만일 대답이 “아니요”라고 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면, 그의 믿음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판단은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었거나 또 죽어가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근거와 선교의 필요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예수님과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를 찾고 예표를 말하는 것도 이 범주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범 죄 함을” 인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사탄의 사망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사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함”이다(롬 4:25). 따라서 인간의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되었고, 인간의 죽음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며, 약속이며, 보증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예식이 침례(세례)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소급적용을 살펴본 이유는 로마서 5장 12-21절의 말씀이 아담의 원죄 또는 유전죄를 말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원죄의 결과보다 훨씬 더 커서 아담의 죄까지 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22. 성화의 원리1(6:1-14)

로마서 1-8장의 요약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활용하였다. 첫째, '의롭다 하심'(4:24; 5:1, justification)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이다. 이 용어는 법정용어이다.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에 비유될 수 있다. 인간의 죄성(罪性)은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이신칭의(以信稱義) 혹은 이신득의(以信得義)라고 부른다. 둘째, '구속(救贖, 3:24, redemption)이 있다. 이 용어는 노예시장의 통용어이다. 근본개념은 몸값(贖錢, ransom)을 내고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죽음을 뜻하는 몸값(贖錢)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에게 지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푸는데 지불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3P 즉 죄의 형벌(punishment), 죄의 권세(power), 죄의 실재(presence)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자원함으로 순종의 종(16절), 의의 종(18절), 하나님의 종(22절)이 된다고 말했다. 셋째, '화목'(5:10-11, reconciliation)이 있다. 이 용어는 중재(仲裁)용어이다. 분단의 벽을 헐고 적대감정을 풀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화목은 하나님의 적대감과 진노하심이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화목제물(propitiation)이 되셨다. 넷째, '그 피를 인하여'(3:25; 5:9, sacrifice)가 있다. 이 용어는 피해보상의 개념이며, 희생제사 용어이다. 구약에서는 피 흘림만이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한 속죄제물(atonement)이 되

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끼친 피해를 보상하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행위가 그를 믿는 자의 행위로 간주되고 전가(轉嫁)된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서 구원의 근원, 구원의 수단, 구원의 시간,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로마서 1장 16-17절에서 복음의 능력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를 선포하였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모든 인간은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며,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서 구원의 근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수단으로써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값없이 차별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에서는 구원의 시간으로써 침례를 통한 중생의 출발과 구원의 목적으로써 거듭난 성도들의 성결과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까지에서 칭의(稱義)를 주제로 삼았고, 6장부터 8장까지에서 성화(聖化)를 주제로 삼았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배를 타고 거친바다를 향해중이고,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사막의 가시밭길을 걷는 순례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내주동거와 인도하심 때문에 성도는 ‘정복자들 이상의 정복자’(more than conquerors)가 될 것이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강조하였다.

칭의(稱義)와 성화(聖化)의 관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장 14절까지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할 순종의 의무 또는 원칙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당성과 필연성을 설명하였다. 7장 15-2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영적(영혼)구원뿐이고, 육체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뤄질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육체와 본능을 그대로 지닌 채 여생을 살아가야하므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바울 자신도 순종의 어려움 때문에 깊이 탄식하였다.

인간의 죄성(罪性)은 육체의 본능에 있으며, 성도의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 미래구원에 성도들의 참 소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승리와 그 능력을 피력하였다. 성도는 여전히 죄지을 성질을 지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중생(regeneration)과 함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more than conquerors)고 강조하였다. 순종의 어려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고, 미래에 누리게 될 복들을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앞당겨와 미리 맛보고 체험하며 누린다(anticipation)고 설명하였다.

성도들이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육체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죄성(罪性)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님의 내주동거와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점진적인 성화(聖化)를 이뤄나간다.

이 성화(sanctification)가 칭의(justification)로 일컬어지는 의롭다함과 어떻게 다른가? 칭의는 (1)법적 문제이고, (2)위법문제를 해결하며, (3)죄를 제거하는데, (4)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신자의 죄를 (5)외적으로 객관적으로 (6)의인(義人)으로 선포하시고 간주하신다. 그렇게 되면, (7)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영구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를 초기성화라고 부른다. (8)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데, (9)불신자를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므로 불신자에게 필요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성화는 (1)인간의 본질문제, 즉 (2)병든 상태를 치료해 가는 과정이며, (3)썩은 곳을 도려내고 씻는 것인데, (4)의사이신 성령님이 하신다. 이 과정의 초기성화를 중

생(重生) 또는 거듭남으로 부르며, (5)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6)의인으로 만들어진다. (7)이후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는데, 이를 점진성화라고 부른다. (8)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로써 (9)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교인이 된 성도들의 삶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꽃이 피는 목적은 열매를 맺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꽃은 열매의 시작이다. 칭의와 성화도 마찬가지이다. 칭의는 성화의 시작이요, 성화는 칭의의 목적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1:17; 3:28)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한 것(6:16)이라고 하였다. 믿음만 있고 행위가 없으면, 값싼 은혜요. 행위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도덕(-1)이요.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으면, 복음(+1)이 된다.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옛사람의 본능이 조금도 성화되지 못한 것이다.

성화의 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무시한다고 보았다. 그들은 “만일 율법의 행위가 것처럼 보잘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만일 은혜뿐이라면, 왜 은혜가 역사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흉악하게 욱욕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겠는가?”라고 힐난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힐난을 냉혹하게 물리쳤다. 이신칭의 교리는 결코 죄를 정당화하거나 율법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계속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점에서 알 수 있다(6:1-14). 이뿐 아니라, 바울은 “누가 너희를 주관하는 자냐?”고 묻고(6:15-23), 마땅히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7:1-6). 또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강변하였다(7:7-14).

은혜의 본질이 죄를 짓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닐까(6:1)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죄를 사함 받고, 새 본성과 새 삶을 얻은 자가 계속해서 죄에 머문다는 것은 도덕적 모순이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것이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새사람으로 부활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는 것은 새사람의 삶에 모순된다(6:2-5).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 많은 옛사람을 장사하고 새사람으로 부활한다면, 침례는 구원의 시간이 된다. 침례 가운데서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다(고전 6:11; 딤후 3:5-7. 참고:막 16:16; 요 3:5; 행 2:38; 22:16; 갈 3:27; 벰전 3:21; 엡 4:5). 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6:6, 갈 5:24-26)는 말씀은 구원의 목적을 말한다(엡 2:10). 바울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6:12), 몸의 지체를 죄악의 도구로 쓰지 말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기를(6:13) 권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죄가 주관치 못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죄란 죄의 영향이 아니고, 죄의 형벌과 권세와 실재이다. 성도들은 이미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그 영향으로부터는 면제되지 않는다(6:14).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죄로 인해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주관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를 다 사함 받았으므로 죄가 없다고 간주된다. 그렇다고 죄의 영향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옛사람의 본능아래 있기 때문이다. 바울도 로마서 6장 6절, 8절, 1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의 물속에서 죽고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될 것이라

고 하였다. 비록 우리가 아직 육체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부활할 줄로 믿고, 부활한 자로 간주하여, 부활에 참여한 자 같이 죄지을 성질을 아직 버리지 못한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의(義)의 병기로 바칠 것을 권하였다.

23. 성화의 원리2(6:15-7:25)

믿음과 침례와의 관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침례를 소홀히 해도 좋을 것처럼 받아드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구원에 관계가 있던 없던 침례는 교회론, 구원론, 종말론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례이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받으셨고, 또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취급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나라이다. 초기성화(중생, 칭의)에서 출발하여 완전성화(성화)로 나아가는 도상의 나라이며, 미래의 하나님나라를 여기 지상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앞당겨와 맛보고 경험하는 선취적인 나라이다. 교회는 교인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침례를 받았거나, 유아세례 후 견진례를 거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이 성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입교준비교육 또는 교리문답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자들이다. 3세기 초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에는 입교준비기간을 통상 3년, 짧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체 없이 침례를 받고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피침수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침례를 받아야 입교자가 되고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입교자는 교회론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침례식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증인들 앞에서 고백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수정난이 먼저 만들

어려야 출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믿음을 수정란에 침례를 출산에 비교할 수 있다. 또 믿음을 사랑에 침례를 혼인에 비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부부의 연을 맺는다. 베드로전서 2장은 침례식의 서약(신앙고백)을 옛 시내산 언약(舊約)에 비교하여 새 언약(新約)으로 암시한다.

수정부터 출산까지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듯이, 믿음부터 침례까지는 중생에 이르는 한 과정이다. 출산 후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장의 과정을 거치듯이, 침례 후에 교회와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서 성장과정을 밟게 된다. 침례 후에 시민권자(입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신학에서는 시작된 종말 또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종말의 시작은, 형식적인 면에서, 침례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이 축복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침례는 서로 별개의 것이거나 어느 것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들이다. 침례는 믿음에 의한 행위이자,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결과이다. 신자의 구원에 믿음과 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다. 믿음은 영원하다. 바울은 믿음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침례는 신뢰의 믿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는 다리이다. 복중의 태아를 험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출산인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

만약 우리가 율범아래 있지 않다면,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어떤 법도 우리를 얽매거나 묶지 못할 것이 아닌가(6:15)라는 반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5절부터 7장 6절에

서 밝혔다.

로마서에 언급된 자유는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된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심판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 것이다. 율법이 정의실현과 질서유지에는 가치가 크지만, 구원의 수단으로써는 무가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세로부터 절대자유나 자율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최악이며 거짓자유이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의미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율법 준행의 의존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주의동기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데, 의무가 아닌 사랑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섬김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고 말했다. 죄를 섬기면 죄의 종이 되고, 의를 섬기면 의의 종이 되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6:16)고 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순종의 종 혹은 의의 종이 되었다(6:18,22)고 했다. 전에는 사망의 왕인 사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왕인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 따라서 은혜 아래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변치 않는다. 순종의 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기신 것이 있다면, 율법사들이 만들어 지키게 한 장로들의 유전(gezeirah) 즉 율타리 법들이었다.

성도들의 순종의 동기는 사랑과 감사와 자원함이다. 이제는 의무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미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6:17,7:1-3). 우리가 율법아래서도 최선을 다했거든, 하물며, 은혜아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6:19-20), 우리가 사망의 삶을 위해 죄를 섬겼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6:21-23)라고 바울은 말했다. 비록 우리의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6:19)고 권했

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선물)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안에 있는 영생이다”(6:22-23)고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차별 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7:4)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위의 삶이요, 수고와 노동의 삶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라고 했다.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7:5-6). 사망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다”(갈 5:19-21)고 하였다.

율법의 성격과 성화의 갈등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율법에 이상이 있거나 율법이 악하단 말이 아닌가라는 반박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했다.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본능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했고, 그 후손들이 범했던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죄지을 성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렇지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7:12)고 바울은 밝혔다.

또 바울은 율법이 죽음의 원인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다. 율법(계명)은 오히려 신령하다(7:14)고 했다. 반면에 우리가 순수한 동기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우리 몸의 죄지을 성질이 이를 만만히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피하지

못하고 죄에 팔리는 것은 우리 몸이 아직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활은 인간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이자 구원책이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지을 성질에서 아직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5-25 절에서 탄식을 금치 못했다. 본문에서 묘사된 “나”란 사람은 바울 자신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이다. 탄식의 원인은 아직 해결 받지 못한 육체의 죄성(罪性)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죄성(罪性), 죄지을 성질, 또는 육체의 본능을 말한다.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 성화를 이루기 위한 갈등과 탄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성화의 완성에 두지 않고, 초기성화(중생, 칭의)에 둔다. 구원의 확신은 초기성화에 있지, 완전성화에 있지 않다. 따라서 성화를 이루기 위한 갈등과 탄식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고 완벽한 행함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의 조건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성화를 이루고자하는 갈등과 탄식이다(7:22).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의지를 찾고 계시지 완전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 죄지을 성질인 육체의 본능을 극복하는 완전성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야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을 담보로 성결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명대학교 오우성 교수는 본문의 “나”는 중생한 자의 관점에서 본 중생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중생한 자로서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실존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율배반적인 갈등 속에서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말하였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내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세력, 그

리고 이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다고 설명하였다<로마서 7장 14-25절의 주석사>. 여기서 죄의 세력은 아담이 겪었던 육체의 본능이요, 육체가 죽고 영혼이 낙원에 이르거나 육체가 부활하면 사라질 일시적인 것이다.

24. 성화의 능력(8:1-39)

로마서 8장의 대 선언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6-8장에서 구원에 이른 성도가 살아야 할 성화의 삶을 설명하였다. 6장 1절부터 7장 14절에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결해져야 할 성화의 의무를, 7장 15-25절에서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현실을, 8장에서 육신의 연약함과 성화의 어려움을 극복시킬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연약함 또는 본능의 욕구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 있고 계명을 사랑할 수 있다. 성화의 갈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충이다(빌 3:12-14; 갈 5:16-17; 요일 1:8; 롬 8:12-14; 고전 9:27).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로마서 6장 2절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말은 우리에게 있는 죄지을 성질이 죽었음을 뜻하지 않는다.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죄지을 성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은 죄성(罪性)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가지 않는다, 짓값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서 잠시 흠에 묻히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향할 것이고, 주님의 재림 시(時)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중생의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초기성화(중생, 칭의)를 얻고, 점진성화를 통해서 성숙하여져간다(참고: 살전 5:23; 벰전 1:15-16). 점진성화란 육체의 욕망이 점점 죽어 가고, 반대로 영혼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죄의 영

항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육체의 본능이 조금씩 성화되어져가는 것을 말한다(고전 15:57; 빌 1:23; 3:21; 롬 8:23; 히 12:1f). 이 성화의 능력이 성령님의 내주동거와 인도하심에서 온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내용이다.

로마서 8장에는 세 가지 대 선언이 나온다.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1절)는 선언이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법이 사단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켰기 때문이고(2절),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이다(8:3). 둘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8:18)는 선언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란 주님의 재림 시(時)에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연법칙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 시(時)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데까지 이어진다. 셋째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8:37)는 선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라는 배를 타고 험한 세상바다를 항해중이고, 가나안을 향하는 광야사막 길을 걷는 목마른 순례자들이지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정복의 영웅들이 되었듯이, 성도들의 행군의 끝은 ‘정복자들 이상의 정복자’(more than conquerors)가 될 것임을 선언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의 대 선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1절)이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2절). 또한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를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기 때문이다(3-4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신자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의(義)로 여기시고, 사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인하여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에게 죄성(罪性)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히셨으며, 과거에 그분을 믿었던 자들과 현재에 믿는 자들과 또 미래에 믿을 자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전가시키셨다. 그것은 마치 먼 옛날에 흠(결점) 없는 희생 제물에 안수하여 예배자의 죄를 전가시킨 것과 같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셨다. 이 예수님의 보혈로 신자들의 죄를 씻게 하셨고, 죄의 삯인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율법(계명)은 거룩하고 또 아무 문제도 없다. 인간의 육신이 언약하여 죄지를 성질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인의 칭호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4절)는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목적은 죄지를 성질인 육신의 본능의 욕구를 좇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동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행하여 성화를 이뤄가게 하려는 것이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을 좇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4-5절). 그 결과가 자명하다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6-8절).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동거 감화인도가 없으면 그

리스도인이 아니다(9절).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의 욕구를 이기며 점진적으로 성화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죄의 삯으로 죽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10-11절),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본능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12절). 성령님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화될 수 있다(13절). 우리가 성령님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14-15절).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혼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보증금과 인감 찍음이 되신다(8:16, 엡 1:13-14; 고후 1:21-22; 5:5).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가나안의 상속자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기면 그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17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번뇌가 아담의 원죄 때문이든, 피조물의 필연인 엔트로피(자연법칙) 때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만 그 약속이 이뤄질 시점이 주님의 재림 때이므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고통과 번뇌를 계속해서 겪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18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육체구원과 자연구원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조물도 성도들과 함께 탄식으로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19-25절).

하나님의 제1차구원은 영혼(현재)구원이다. 제1차구원은 종말에 있을 제2-3차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성령님께서 이 약속을 보증하시고 인감 찍으신다. 따라서 제1차구원은 제2-3차구원의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초기성화(중생, 칭의)를 통해서 인간의 법적인 죄가 사(赦)해지고, 죄지를 성향의 본질이 초기적으로 성화된다. 하나님의 제2차구원은 육체부활이다. 인간구원은 육체구원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미래종말의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다(23-25절; 고전 15장; 고후 4:12-5:10; 빌 3:21). 모든 성도들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구원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성도의 육신은 “신령한 몸” 혹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며,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때 인간은 육체의 약함과 본능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망이 생명이 되고, 죄성(罪性)이 회복되어 완전성화에 이른다. 하나님의 제3차구원은 우주회복이다. 이 역시 미래종말의 차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다(8:19-22; 계 21장; 벧후 3:10-13; 사 65:17; 66:22).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 우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 이때 비로소 사막에 꽃이 피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우주와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18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37절)고 선언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며(26-27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이와 같이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다(34절).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유익하게 조종해 주시며(28절), 예지예정하시고, 부르셨으며,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29-30절). 셋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항하겠으며(31절), 외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는가(32절),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소하겠으며(33절), 의롭다고 칭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으며(34절),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35-36절)라고

묻는다. 결론으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37절), 천상천하에 그 누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39절)고 선언하였다.

25. 유대인들의 구원문제(롬 9:1-18)

복음전도의 우선순위

로마서 1-8장까지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을 마친 바울은 9-11장에서 오랜 야훼 하나님 신앙의 뿌리와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의 구원을 심히 염려하였다.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1절)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3절)는 말로써 유대인 특유의 애족(愛族)정신과 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를 피력하였다.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 믿어온 민족신 하나님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선포한 바울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뽑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지만, 복음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먼저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1:16. 참고. 2:9-10)는 표현을 세 번 사용했다.

바울은 이방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 그 이유는 그곳에 복음을 수용할만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수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나라들의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들으라”(행 13:16)는 말로써 시작하였다. 신앙에 관한한 유대인

들이 먼저라는 의식이 바울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깨닫는다면, 가장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의 구원을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염려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실 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이천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게 해준 모세 이후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전통을 지켜왔다. 바벨론에 약속의 땅을 빼앗긴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은 가나안회복의 희망(Ha-Tikvah)을 지속적으로 품어왔다. 제2의 모세가 나타나 그들의 한 맺힌 희망을 꼭 이뤄줄 것으로 믿었다. 그 인물, 제2의 모세가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요, 그가 회복시킨 가나안땅이 지상나라가 아니고, 천국이라고 했을 때, 또 그 나라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였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구원이 전체적인 것이라면 바울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들의 구원이 개인적이면 바울의 염려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 된다. 4-5절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의 특권들, 즉 양자됨(출 4:22, 19:5), 영광(출 16:10, 40:34), 언약들, 율법, 예배, 가나안을 포함한 많은 약속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자랑거리들이 복음을 수용하는데 큰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누린 특권이 그들에게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였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주장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6-8절)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요, 그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장을 펼친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며, 하나님의 언약백성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혈통이 아닌 믿음에 의한 조상으로 세우고 있다는 데 있다.

이삭과 야곱과 유다가 모두 장자들이 아니었다. 이삭과 야곱은 둘째이고, 유다는 넷째였다. 장자들이 아닌 이들이 유대민족의 조상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은 데 있다고 바울은 말하였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혈통에 의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동일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라들이지만, 혈통에 의한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한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요,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누린 특권조차도 하나님의 자비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한 의롭다하심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한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혈통이나 행위가 아닌 신뢰와 신실의 믿음, 즉 아브라함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또 그럴 능력과 권한이 있으시다는 입장을 11-18절에서 피력하였다. 하나님이 부르시고(11절), 자비를 베푸신 자(15-16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16절)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11-18절에서 하나님께는 선택하실 자유도 있고 버리실

자유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버리신 사람들이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도구로 쓰기 위한 것이었는지,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는지,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판별하는데 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려 한 것은 유대민족의 선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을 나라로 주신 것에서처럼, 이방인들을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혈통에 의한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선택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이며, 단체로 구원을 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열방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려는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혈통에 의한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의 선택을 입은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구에로의 선택과 구원에로의 선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6-9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뿐 아니라, 많은 서자들을(창 25:2) 자손으로 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예비하셨고, 이스마엘과 서자들은 이방민족을 형성하도록 내버려두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으며(10-13절), 궁핍이 여길 자를 궁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15-16절; 출 33:19). 야곱은 궁핍의 그릇으로, 에서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역의 도구가 되었다

(17-18절; 출 7:3; 9:12, 16; 14:4,17).

참고로 하나님의 선택과 버림에 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의 등장은 자기 민족을 선민으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가(歷史家)의 신앙관점에서 본 민족사, 즉 민족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신학적 해석으로 본 역사 또는 민족사관에서 이루어진 신앙고백이란 점이 수용된다면,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이삭과 야곱의 선택, 그리고 이웃 경쟁국을 이룬 이스마엘과 에서의 버림(遺棄) 사상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선택과 버림을 주장한 칼뱅의 신앙고백도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칼뱅이 주장한 선택과 버림은 결과론에 입각한 연역적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결과를 보고 필연 혹은 숙명의 입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계시신학을 취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나 우발성이 개입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을 지지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강점을 갖고 있으나, 인간의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모든 것의 원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목적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훈계의지도 있으며, 인간이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의지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을 찾아와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의 제한이다. 피조물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 또 완전하지 못한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완전하지 못함 그 자체가 곧 죄이다. 따라서 주권의 제한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를 두실 수 없으며, 특히 배반을 일삼는 이성적 동물인 인간을 두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피조물이 완전하다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을 모든 결과의 원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짊어지듯이, 인간의 책임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26. 남은 자의 구원(롬 9:19-33)

판침과 열림

하나님의 의지는 닫힌(숙명적인) 것인가, 열린(우발적인) 것인가?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말씀들이 많다. 율법(Torah)이 대표적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 2:17)와 같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들(Mitzvot),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만 이런 계명들이 613개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 가운데 248개는 ‘~하라’는 긍정명령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다. 신학에서는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의 훈계의지에 분류한다. 신약성경에도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먹게 하리라”(계 2:7),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길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 9:22), “너희 믿음대로 되라”(마 9:29), “그 믿음이 의(義)로 여겨졌다”(롬 4:9)와 같이 자발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참고: 막 1:15,11:22, 요 4:21,14:1)와 같은 말씀들이 있다. 이들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닫혀 있음을 의미하는가,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가? 만일에 인간의 운명이 닫혀 있다면,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 훈계들과 명령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마 25:30)와 같이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자에게 물어야 할 책임추궁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는 굳게 닫혀 있어서 절대로 열리지 않는 운명이나 숙명이 아니다. 타고난 운명이나 숙명이 있는 반면에 또한 열려있는 부분도 많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목적의지)대로 결정하시거나 처리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혼계의지처럼) 인간이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들(계명들)이 많고, 인간이 원하고(죄악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일도 많다.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긍정의 변화가 아닌가? 운명이나 숙명처럼 닫혀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긍정의 변화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대로 이뤄져야한다면, “~하지 말라”와 “~하라”는 계명들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변화는 닫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다.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연(因果)법칙이 시공(時空)에 닫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닫혀있다고만 믿으면, 긍정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숙명과 운명을 함부로 결정하지 않으신다. 복에 관한 것이면 몰라도 저주는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과 긍정과 열림과 살림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판 것은 욕심(본능)에 이끌린 때문이고, 베드로가 배반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할을 배정하신 때문은 아닐 것이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것과 미리 정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 미리 아셨으면 반드시 아신 대로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유만 있고 제한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기가 쉽다. 실상은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실 수가 있다. 인간에게는 실수와 허물이 허용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시는 반면, 인간에게 자유는 허용된 것이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방종에 빠지기가 쉽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완전한 자유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실 수 있지만, 한번 정하신 것을 번복하거나 바꾸실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다. 만일 결정하신 후에 번복하거나 바꿀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일단 무언가를 정하시면, 그것을 번복하거나 바꾸실 수 없게 된다. 번복하거나 바꾸실 수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한적인 자유를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함부로 인간의 운명이나 숙명을 이렇게 저렇게 예정하지 않는다. 만일 인간들의 운명을 모두 결정해 버리시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게 되고, 그 오랜 자비를 베푸실 수 없게 된다. 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자비를 베푸실 자유를 누리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시고 열어 두신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탕자의 행불행의 운명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열어두심으로써 그가 언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시는 방법이다. 만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면, 신학자 칼 바르트 식으로 말하자면, 돌아온 탕자처럼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겠다는 자비의 결정일

것이다.

하나님은 목적하신 일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개는 천지창조와 자연법칙 또는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큰일들이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독단으로 결정하시기보다는 계명들을 주시고 지키게 한 후에 상벌을 주시거나 인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관계하신다. 이것을 훈계의지와 허락의지라 부른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열어 놓고 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때 복을 내리셨던 인간에게 벌을 내리실 수가 있고, 반대로 벌을 내리셨던 자에게 복을 내리실 수도 있다. 개개인의 운명으로 상벌을 미리 정하시기보다 선악에 따라 상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고 임시적인 결정들을 하실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로마서 9장 19-33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말씀이다. 한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귀히 쓰일 그릇과 긍휼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긍휼의 대상이란 점, 하나님의 오랜 자비에는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빚을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그릇들을 만드셨는데, 선교의 도구로 귀히 쓰일 그릇을 만드셨다. 그 그릇이 이스라엘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반면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스마엘과 에서는 천히 쓰일 그릇들이었다. 이방인들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선교의 대상보다는 도구가 귀한 그릇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히 쓰일 그릇과 천히 쓰일 그릇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말씀과 같다. 이 그릇들이 다 귀(貴)하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귀하다고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천한 그릇인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30절)를 얻었다는 것과 귀한 그릇이었던 유대인들이 “부딪칠 돌에 부딪쳤다”(32절)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또 한때 이스라엘은 긍휼의 그릇이었고, 이방나라인 이집트는 진노의 그릇이었다. 이들 그릇들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그 누구도 항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19-21절). 왜인가? 차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때문인가, 아니면,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진노의 그릇이 되었겠는가? 하나님은 강박한 바로에게조차도 열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떨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22절)는 말씀이 그런 뜻이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 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23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긍휼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와 동일한 원리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즉 귀한 그릇 유대인뿐 아니라 천한 그릇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신다고 말하였다. 귀하든 천하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이다(24절).

그래서 바울은 25-33절에서 호세아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이방인 구원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 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25-26절)한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27-29절)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였다. 구원의 원리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던” 방법, 즉 “믿음에서 난 의(義)”였다(30절). 한때 귀하게 쓰일 그릇이었고, 공흠의 그릇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공동체인 ‘남은 자들’에 속하지 못한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때문이었다(32절).

27.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10:1-21)

유대인들의 남은 자

바울은 로마서 9장 27-29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바울은 이사야의 ‘남은 자’(remnant) 사상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풀었다. 본래 남은 자란 시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었던 북 왕국 이스라엘이 남 왕국 유대와 동맹을 맺었던 앗시리아로부터 군사적인 패배를 당하고 전쟁포로로 끌려간 후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들만이 본토(本土) 또는 고토(故土)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yesayahu, 야훼는 구원하시다)는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멸망당한 주전 722년을 전후로 절반씩 4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헬살랄하스바스’(사 8:3)와 ‘스알야습’(사 7:3)이다. 이 이름들은 이사야가 선포한 두 가지 예언활동의 내용들이었다. 첫째 이름, ‘마헬살랄하스바스,’ 즉 ‘노락이 신속함’ 혹은 ‘약탈이 빠름’은 회개운동으로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타민족의 침략을 받게 하여 유배를 보내시겠다는 뜻이다. 둘째 이름, ‘스알야습,’ 즉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는 회복운동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 받게 하신 후에 유배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 기회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대의 패권국가인 앗시리아를,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등을 돌림으로써 패망하였다. 정치적으로 보면, 국가지도자들이 국제정세(國際情勢)를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특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회개운동과 더불어 회복운동을 펼쳤다.>

바울은 여기서 이 ‘남은 자’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특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였다. 이사야의 ‘남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았던 것이다. 바울이 믿었던 구원의 원리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던” 방법, 즉 “믿음에서 난 의(義)”였다(9:30). 한 때 귀한 그릇이었고, 공훈의 그릇이었던 유대인들이 구원공동체인 ‘남은 자들’에 속하지 못한 것은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때문이었다(9:32).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피력하였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10장 1-3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피력하였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 대단하지만, 잘못된 지식과 방법 때문에 헛수고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義)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義)는 그들이 소유한 모든 계명들과 율타리 법들을 다 지켰을 때의 결과였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고, 실수와 오류를 피할 수 없으므로, 아무도 율법들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자기 의(義)는 윤리적인 삶에는 유용하나 구원에는 무용하며, 유대인들이 잘못된 지식과 방법으로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

유대인들의 열심

유대인들은 타 민족들이 갖지 못한 심오한 영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타민족들의 우상 신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타민족의 신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었다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살아서 활동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유일신이였다. 따라서 유대교에는 타종교들에서 발견되는 신들의 형상도 신화도 여성사제도 교리도 신앙고백서도 없었고, 신전도 예루살렘에 단 한 개뿐이었으며, 성소에는 일반사람들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다. 타민족들은 많은 신들을 갖고 있었고, 그 형상들과 이름들을 돌에 새겼지만, 유대인들은 단 한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형상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지 못하도록 제2계명에 명시하였다. 사람의 손으로 새길 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다. 참신은 영이시고 신비에 쌓여있어서 그 형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었고, 말씀으로만 인간과 관계하시는 분이셨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여 안식일과 절기들을 철저히 지켰다.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Melacha)를 설명한 수많은 안식일 법들을 만들어 지켰다. 적어도 매일 세 번씩 기도회를 가졌으며, 100여개의 기도문들(berakhot)을 암송하였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체를 갖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Torah, 율법)를 자랑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보좌라 믿었던 법궤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네주신 토라(율법)가 있었다. 그들은 토라의 내용들을 심히 사랑하여 뽀뽀하였고, 문자적으로 읽고 온몸으로 실천하였다. 613개의 계명들(Mitzvot)뿐 아니라, 랍비들이 제정한 수많은 율타리 법들과 오랜 관습법들을 온몸으로 지켰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과 민족과 메시아도래를 철저히 믿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신이라고 믿었으며, 조상대대로 섬

졌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의 계명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식일 및 절기법(Moed), 음식법(Kashrut), 손 씻기법, 그릇 씻기법, 농사법(Zeraim), 결혼 및 이혼법(Nashim), 일반 형법(Nezikin), 희생제물법(Kodashim), 레위인의 성결법(Tohovoth) 등 셀 수 없이 많은 율타리 법들을 만들어 지켰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의 참 뜻과 취지를 벗어나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그들 민족의 신으로 독점해버렸다. 하나님이 타민족들의 신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한분밖에 없는 신을 독점해 버렸으니, 타민족들에게 참신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 신(神)의 독점의식의 절정이 예루살렘 성전이였다.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에는 단 한 개의 성전만 허락되었다. 그나마도 하나님을 지성소에 묶어뒀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사장이 일 년에 단 하루 법궤 앞에서 두어 차례 독대할 수 있었다. 보통사람들은 성전내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유일신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해방되신 것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였다. 성전은 능욕되었고,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다. 이 치욕적인 사건이 있고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성전 지성소에서 해방되셨다.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요 19:30)고 말씀하셨다. 바울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8:4)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the end of the law)이 되시며”(4절),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100퍼센트 충족시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5절)는 것이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에 있는 자라 하였다”고 적었고, 야고보도 서신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였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1:18; 3:20).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義)에 이를 수 있다(6-13절). 이런 점에서 기독교 복음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

구원의 원리는 단순명료하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9절)고 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음으로써 받는 구원의 첫 걸음인 ‘구원하는 믿음’의 내용이다. 이 믿음은 신앙고백서나 교리보다 훨씬 단순간결하다. 예수님을 주(主)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10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딤후 3:5)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11절, 5:5).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절)고 하였다. 이 구원의 원리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主)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12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단순하고 간결한 구원의 원리를 유대인들이 거역했으므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였다(14-21절).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으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14-15절)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16절). 바울과 동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 지중해연안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 때리고 가뒀으며 죽이려고 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17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이른 복음을 믿지 않았다(1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며, 그들이 받을 복이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에게 넘어갔다(19-21절, 1:20, 2:1). 지나친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이 독약이 되어 유대인들을 깊은 동굴에 가두는 족쇄가 되었고, 그들을 소경과 귀머거리로 만들었다.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독교복음을 외면하고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비밀로 남아 있다(엡 3:4).

28. 하나님의 자기 백성(11:1-24)

남은 자들의 예표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다만 돌아오기를 바라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택하신 것은 구원으로 개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교도구로 전체를 택하신 것이다.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지만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2절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언약백성이요 선민이었던 전체 이스라엘을 뜻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을 뜻한다. 4절의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종교탄압이 최고조에 달했던 북 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비롯한 칠천여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켜냈다. 바울은 이들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a remnant chosen by grace, 5절)라고 불렀다.

여기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최종 결과에 의한 산출이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다. 6절에서는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은혜로 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남은 자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박해자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행운아들이었다.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일단 박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 고문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칠천여명의 신앙인들이 살아남았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

는가?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만을 유일하게 따로 뽑아 믿음을 지키도록 살려놓으셨으며, 나머지는 배교하거나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두셨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숨어 지낸 것은 그들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다.

바울은 엘리야와 칠천여명의 남은 자들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예표와 모형 또는 그림자로 보았다. 2절의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이요 선민이었다. 그런데도 엘리야와 남은 자 칠천여명을 일컬어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칭한 것은 그들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7절의 말씀대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이요 선민일지라도, 야훼신앙을 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둔하여지고 버려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언약백성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짐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 따라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버리고 ‘남은 자들’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는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은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보다 빨리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수용했다면, 오늘 날처럼 기독교가 이방인의 종교로 발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그들 조상의 하나님 또는 민족의 신(神)으로 믿어왔고, 바벨론 유배이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제2모세 메시아도 유대인의(of), 유대인에 의한(by), 유대인을 위한(for)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아브라함이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상속 받을 자들이 전체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라는 기쁨의 소식, 즉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기독교 복음이 영영 사장되고 말았을 지도 모른다. 바울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강박한 마음이 오히려 기독교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유대인들이,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이후, 그나마 6백여 년간 강대국들의 식민지형태로 유지되어온 조국에서조차 쫓겨나 1878년간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힘겹게 살게 된 그들의 비극이 오히려 기독교 발전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후 30년 교회창립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항상 있었다. 비록 그 수(數)가 매우 작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과는 차이가 좀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있었다. 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궁극적인 구원에 도달할 남은 자들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의 개종에 자극제가 된다고 보았다. 시샘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드릴 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유대인들의 실족이 복음의 진보에 어떤 영향을 끼쳤든지 간에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밝힌 중요한 사실을 이쯤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점이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먼저 된 유대인들이 받기로 약속된 신령한 복들을 나중 된 이방인들이 상속자의 자격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도록 예정하셨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후발자인 이방인들이 겸손해야하고,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에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본래 자격이 없던 이방인들조차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면, 복음을 수용한 유대인들이 받을 복은 또 얼마나 풍성하겠는가(12절)고 바울은 말한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긴 하지만,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롬 1:16).

복음의 진보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족이 이방인들의 개종에 유익이 되고, 또 역으로 이방인들의 개종이 유대인들의 개종에 유익이 된다고 보았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보완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유대인들이 실족한 이유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엡 3:9)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고전 2:7)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엡 3:8)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고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믿었다. 바울은, 만일 유대인들이 이 비밀한 지혜를 알았다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고전 2:8)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성령님이 계시하신(고전 2:10, 엡 3:3) 이 비밀한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 “육에 속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고 하였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깨달아 안 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다만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라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롬 11:14)한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들과 계명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들은 마치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것으로 빛는 빵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16절)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인들이 처음 시작한 야훼신앙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야훼신앙은 물론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이 야훼신앙에 접붙임을 받아 그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고 하였다(17절).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다”(18절)고 하였다.

유대인의 실족이 이방인들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되고(11-12절, 엡 3:8), 이방인의 풍성함이 유대인들의 개종의 도구가 됨으로써(13-14절) 복음은 진보하였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 이 하나의 원리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서고, 안 믿으면 꺾인다(20-22절).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다시 꺾일 수 있으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20절)고 경고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엡 3:2)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엡 3:9)에 따른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리석게 여긴다면, 원가지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꺾어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21-22절). 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을 유대교의 야훼신앙에 접붙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언약백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자기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는가(23-24절)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길이 민족성별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음을 강조한 말씀이다.

29. 이방인의 충만한 수(11:25-36)

하나님의 신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다. 여기서 말한 ‘신비’(mystery)는 비밀을 말한다. 바울이 여기저기서 언급한 하나님의 신비 혹은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졌던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깨달을만한 신령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실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표로써 영적으로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엡 3:8)으로 성취되어진 사실을 모른 채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성취를 기대(Ha-Tikvah)하였기 때문에 또 육에 속했기 때문에(고전 2:14)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전 2:8).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엡 3:9)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고전 2:7)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광’(our glory)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최종 결과에 의한 산출이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세대들에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둔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들 가운데 다만 몇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결실이 유대인들 가운데

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다(롬 11:5).

역사학자 토인비가 지적한 것처럼, 고대사회에서 가장 높은 영적차원에 도달한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의 유일신 창조주에 관한 깨달음은 다른 종교인들과 차원이 달랐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두 번째 대구원사건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였으며 싫어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두 번째 모세인 그리스도가 도래하여 그들의 희망을 이뤄줄 두 번째 대구원사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오랜 기다림이 그들의 가장 뼈아픈 실패이다. 이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지난 2천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민족으로 지내야 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25절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의 도”(message)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최종 결과에 의한 산출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남은 자들에 들지 못한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우둔하여지고 버려진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하나님의 능력)이란 점을, 헬라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의 구원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여기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최종 결과에 의한 산출이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주님의 재림 후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믿는 전 천년설자들 중에는 “온 이스라엘”을 칠년 대환난 시기의 유대인들이라고 본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단 한번 쳐다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οὗτως”(houtos)의 올바른 의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란 뜻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설명해온 구원의 방식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까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온”이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 칠년 대환난 시기의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왔다.

칼뱅은 “온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모든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문맥상 이 해석은 불가능하다. 바울은 본문에서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앞에서 설명한 구원의 방법을 11장 28-32절에서 재차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구원문제를 결론지었다. 28절에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민이 된 백성이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열방선교를 위한 전체적인 것이었지, 개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구약성경뿐 아니라 유대교에도 유대민족 전체가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영적(현재)구원의 개념도 없다.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장차올 세상(Olam Ha-Ba)은 예루살렘에 성전과 제사예배가 재건된 유대교 중심의 지상세계이지 천국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옛 언약공동체로서 새 언약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

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세속국가이지만, 기독교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구약공동체는 언약의 내용인 토라(율법)와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규범으로 삼지만, 신약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 담긴 신약 성경의 복음을 규범으로 삼는다. 구약공동체는 모세의 가르침과 전통위에 세워졌지만, 신약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과 사도들의 기초위에 세워졌다(엡 2:20). 이런 점에서 복음에 있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는 적대관계이다.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해왔고, 예수님을 쉬메온 밭 코크바(Shimeon ben Kosiba)나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와 같이 한때 유대인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메시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적 색채가 강한 메시아란 말도 쓰지 않고, 모쉬아크(Moshiach)란 단어를 쓰고 있으며, BC(주전)와 AD(주후)를 쓰지 않고, BCE(기독교시대 전)와 CE(기독교 시대)를 쓰고 있다.

하나님의 예정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옛 선민으로 택하셨으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오해를 받는 것처럼, 그들을 전체적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우둔하여지고 어리석게 된 옛 선민인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기쁘게 맞이하시겠다는 뜻인가? 후자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1장 30-36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게 유익이 되었듯이, 이방인들의 순종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주님의 그

오랜 자비를 입게 될 것이라는 앞에서의 설명을 거듭 강조한 말씀이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휼을 베풀려 하심이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드셨다는 뜻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였지만,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그 오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뜻인가? 후자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거나 불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가두어 두심”(bound)은 칼뱅이 주장한 것처럼 ‘버림’(遺棄)이 아니다. “가두어 두심”은 “내버려두심”(롬 1:24,26,28), 즉 하나님의 허락의 지를 뜻한다.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뜻한다. 자유의지와 인간이 범한 죄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렇다고 기약 없이 내버려두시는 것은 아니다. 정하신 시간(kairos)만큼 내버려두셨다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자비를 베푸신다. 구약예언자들의 예언활동의 핵심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바로 이 회개운동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다.

특정인을 버리는 예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33절의 말씀처럼,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로 이것을 깨달았고, 깨달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노예처럼 헌신하였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이라고 믿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믿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저주와 죽음 대신에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시고, 그 대신 그들의 몫인 저주와 죽음을 친히 하나님께서 십

자가에서 당하기로 예정하셨다고 믿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이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는 설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꺾임을 당할 것이다. 유대인들처럼 한번 꺾였다할지라도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오랜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다.

30. 삶으로써 드리는 예배(12:1)

하나님의 자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죄악성, 인간육신의 연약함, 구원의 필요성,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풍성함, 구원의 원리, 구원의 근원, 구원의 수단, 구원의 시간, 구원의 목적, 옛 언약공동체인 유대인들의 역할과 신분, 유대인들의 구원, 선택, 예정 등의 믿음과 신학의 문제를 1-11장에서 다룬 후에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12:1)으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권하였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이고 실천적 삶을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였을까?

바울이 로마서 1-11장에서 논증한 복음의 풍성함과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까를 심도 있게 논증하였다.

이 우주에 단 한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되신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시고, 평등하신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푸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없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신다. 집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렸듯이 다만 기다리실 뿐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맏아들만이 아니라, 탕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만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못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일등만이 아니라, 꼴찌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것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로마서 이야기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에 관한 논증이 로마서의 내용이다.

오랜 주님의 자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길을 찾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무리,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은 민초, 폭풍만난 제자, 소경, 앓은 뱀이, 문둥병자, 다섯 남편가진 여인, 38년 된 병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 등, 앞 못 보고, 듣지 못하며, 걸지 못하고, 상하고 헤지고 찢긴 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내보였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값도 없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만으로 이 주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주님의 자비를 우리 모두가 입었고,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할까? 바울은 주님의 그 오랜 자비를 입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12:1).

살아있는 제물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의 뜻은 무엇인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본래 죽여서 가죽을 벗긴 후 각을 떼서 바쳤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다. 무슨 뜻인가?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써 바치라는 이 말씀은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으로써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다. 이 예배를 바울은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바울이 경계한 율법의 행위와 혼동할 수 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를 경계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써는 무가치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노력은 헛수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무로써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와 자원함으로써 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차별 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다”(7:4)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위의 삶이요, 수고와 노동의 삶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라고 했다. 더 이상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7:5-6). 사망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다”(갈 5:19-21)고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생활로써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는 본래적 목적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 로마서 7장 5-6절을 보면, 우리를 얽매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타율)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자율)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조문의 묵은

것(타율)으로 아니할지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여 본래적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지만, 율법을 따르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므로 동기가 불순하다. 철학자 칸트에 따르면, 동기가 순수한 것이 자율적인 것이고, 동기가 불순한 것이 타율적이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본래적 신앙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이웃을 섬김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 될 수 없다.

값싼 은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조차 폭행, 고소고발, 현금유용, 성추행과 같은 사건들이 공공사회에 노출되고 있어서 존경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오직 믿음만을 외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율법의 행위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취급한데서 만들어진 부산물이다.

본회퍼는 짐승 같은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던 암울한 시기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힘썼던 실천적 인물이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마 8:21)는 결단을 미루는 제자가 아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를 나를 따르라”(마 8:22)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결단하는 참 제자로 살려고 힘썼던 행동하는 양심이였다. 산상수훈을 연구하였고, 평화주의를 성찰하였으며, 날마다 성구를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엄격한 경건실천에 힘썼다. 본회퍼는 예수님 중심의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가치를 두었으며, 교회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나 마스냐에 따라 평가하였다. 그는 “교회는 늘 참인 원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인 계명을 선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늘 참인 것이 오늘 참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늘 오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였다.

본회퍼는 그가 세운 핑켄발데신학원(1935-37)에서 목사후보생들에게 개신교가 중독되어버린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그는 또 1937년에 출간된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설교하였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물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그것은 대가나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덮개를 값싼 교회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을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함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줄 테니, 모든 것이 케케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까마귀처럼 우리는 싸구려 은혜라는 시체 주위에 모여 그 시체의 독을 받아마셨다. 그 결과 예수를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말았다. 은혜에 관한 교리가 비할 데 없이 신격화되어 그 교리가 하나님 자체, 은혜 자체가 되어 버렸다.... 한 민족이 기독교인이 되고 루터교도가 되었지만, 이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가장

싼값을 치러서 된 것이다..... 오늘날 헐값에 얻은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로 제도권 교회가 붕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본회퍼가 잘 지적한 것처럼, 삶으로써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영적 예배이다.

31. 하나님의 뜻(12:2)

기독교적 가치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면, 이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가르쳤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인도사가 되시며, 변호사가 되시고, 교사가 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들을 앞당겨와 미리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도록 하실 뿐 아니라,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을, 비록 해석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성경에 뒤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선진화되고,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 가치 또는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세속적 가치에 휘말리게 된다. 민주사회일수록 정부는 충돌하는 가치에 대해 중립원칙을 지키게 되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진보보수 좌파우파 사이에는 가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자들은 생명을 인

간이 만든 창조물로 여기면서 인간의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삶을 살거나 죽음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낙태나 자살이 개인의 선택사항 즉 개인의 권리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은 의무감을 갖고 그 생명을 기키는 청지기라고 믿는다. 또 인간은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신성한 선물이므로 함부로 낙태를 하거나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속주의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생활보호권, 자율권, 자기결정권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요구 속에는 동성혼과 안락사도 포함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의 내용(교리)으로 삼는다.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념이고 관점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창조주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몸의 결정권조차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 나의 삶, 나의 노동, 나의 가족, 나의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아니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즉 성경적 가치에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낙태, 자살, 안락사 등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내가 목이 마르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겠는가?

요한일서 4장 18-21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다. 간디가 사랑(비폭력)을 최고의 가치인 진리로 보고, 신에게로 가는 길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주님께서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는가라고 묻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씀에 꽃혀 일생을 산 사람이 레오 톨스토이였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다. 이 비유의 특징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되레 고통당하는 자를 돕는 이야기이다. 이 비유에 꽃혀 일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산 사람이 도로시 데이였다. 도로시 데이는 55세 때인 1952년에 <오랜 외로움>(The Long Loneliness)이란 제목의 자서전을 썼다. 책의 제목을 ‘오랜 외로움’이라 정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숙명적으로 겪는 고통을 표현한 것이었다. 도로시 데이는 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함께 나누는 공동체밖에 없다고 믿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이 마르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꽃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였다. “내가 목마르다”(I thirst). 테레사는 이 주님의 말씀, “목마르다”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못 영혼들 즉 우리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고 계신 것으로 가슴 속 깊이 인식하였다.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모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였다. 그녀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또는 현현(계시)으로 보았다. 예수님을 극빈

자들에게서 또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테레사의 확신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빵이나 치료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끔찍한 가난은 고독이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가장 심각한 질병은 나병이나 결핵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자신이 불청객이라는 느낌이라고 했다. 세상에는 빵에 대한 허기보다 사랑과 가치 평가에 대한 허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웃을 위한 존재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하였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가? 그분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아가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본회퍼였다.

본회퍼는 자기 자신과 자기시대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라는 절박한 물음을 지속해서 물었다. 그가 연구한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그것이 본회퍼가 던진 필생의 물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만인가, 아니면 따름의 대상만인가, 또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자 또한 따름의 대상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만의 대상인가, 아니면 순종만의 대상인가, 또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자 또한 순종의 대상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세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가? 본회퍼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바르트가 강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설 자로 선택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범한 인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마련하시고, 자신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신 하나님이셨다.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세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게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신론자인 포이에르바하는 종교를 인간의 자기분열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신들을 만든 것은 인간인데, 오히려 인간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흙과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부여된 신율에 지배를 받는다는 식이다. 같은 맥락에서 값싼 은혜의 신학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그 논리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본회퍼는 되묻고 있다.

만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값싼 은혜에 만족하고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세상 사람들로 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신론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종교가 고통당하는 인민의 한숨을 대변하는 것이고, 무정한 세계에 주는 감정이며, 영혼 없는 세계에 영혼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아편처럼 인민을 중독에 빠지게 하는 독약이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값싼 은혜는 아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안락의 중독에 빠지게 할 독약일 수 있다. 값싼 은혜의 중독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인가?"라고 본회퍼는 심각하게 되묻고 있다.

32. 교회의 기능과 역할(12:3-21)

교회의 지체들

로마서 12장 3-13절은 성도가 교우들에게 취할 태도를 권면한 말씀이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하였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란 각자가 받은 은사(재능)를 말한다. 여기서 은사란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8-10절에서 언급한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5절과 14절에서 언급한 교회의 직임과 지체들에 관한 것이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모두 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많은 구성원들로 이뤄진다. 몸의 지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각기 다르듯이, 교회구성원들의 기능과 역할도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점을 바울이 로마서 12장 3-13절에서 재차 강조한 것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3절)는 것은 몸의 지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각기 다른데,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면 몸이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4-31절에서 매우 적절하게 설명해 놓았다.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

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이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되, 자기 위치와 본분을 지켜야 한다.

교회의 직임과 기능

바울은 로마서 12장 6-8절에서 교회의 직임과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첫째가 예언하는 자로서 선지자(엡 4:11)이다. 선지자는 장래 일을 말함은 물론이고, 교화, 권면, 위로, 교훈, 말씀

선포 등의 일을 한다(고전 14:3, 31). 이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 둘째는 섬기는 자로서 집사(부제)이다. 노예로서가 아닌 자원자로서 섬기는 봉사자이다(빌 1:1, 딤후전 3:8-13). 셋째는 교사이다(엡 4:11, 갈 6:6). 장로(사제)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사제)와 동일한 개념이다(딤후전 3:2, 딤후전 5:17). 넷째는 권사와 구제자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변호사의 일처럼, 도움을 청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위안을 주는 일을 한다. 이런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다섯째는 치리자이다. 교회의 치리자는 장로(사제)들이다.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행 20:28)고 당부하였고, 디모데에게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딤후전 5:17)고 당부하였다. 이들 구절에서 보듯이, 양 무리를 치고 감독하는 목회와 치리는 장로(목사)의 일인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는 공훈을 베푸는 자이다.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건강한 교회공동체는 (1)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2)형제우애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3)열심히 주를 섬기며, (4)환난을 견뎌낸다. (5)기도에 항상 힘쓰며, (6)공케와 손 대접에 힘쓴다(12:9-13). 이런 점에서 교회의 직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교회의 직임은 명예직도 아니고, 권위직도 아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구별된 직책이다. 신명기 10장 8절은 "그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권이며 영광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

나눔이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했으며,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을 크게 즐거워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면, 이는 매우 수치스런 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며 영광이다. 바울은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고전 4:2)고 했다. 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셨다. 물론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신실 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라는 뜻이다.

교회의 역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취할 두 가지 태도를 격려하였다. 3-13절에서는 교회안의 구성원들에게 취할 태도를, 14-21절에서는 교회바깥 사람들에게 취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 (3)자신을 낮추고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4)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5)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 하라. (6)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7)원수를 사랑하라. (8)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은 정의와 함께 병행될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기독교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충족되는 종교이다. 성도는 사적 보복이나 증오를 버리고 가해자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맹목적 용서와 사랑은 금물이다.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 때문에 인간의 죄 값이

지불되어야 했듯이, 가해자는 정당한 법적 조치를 받아 처벌되어야 한다. 바울이 금한 것은 사적보복이나 증오심이치, 공적처벌과 징계를 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적 처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기구를 허락하셨다. 사랑은 위대하지만, 정의 또한 바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사랑의 도구로, 정부는 정의의 도구로 그 존재목적을 갖는다.

로마제국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헬라인들로부터도 이단시 취급당했고, 탄압을 받았던 아주 작은 공동체에 불과했다. 그런 겨자씨와 같은 공동체가 10여 차례의 큰 박해를 당하고도 300여년 만에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제국 로마를 기독교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외로 단순하다. 1965년 영국인 에릭 도즈(Eric R. Dodds) 교수는 그의 <불안시대 속에서의 이교도와 기독교도>에서 로마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을 네 가지로 꼽았다.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배타적 신앙이 불안시대를 살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되었다는 점;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시하는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의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데 성공했다는 점; 넷째, 일체감이 강한 교회공동체에 가입하게 되면 의식주는 물론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삶이 교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티븐 코비의 <원칙중심의 리더십>를 보면, 마하트마 간디가 “희생이 없는 종교”를 큰 죄로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코비는 “적극적인 교회 활동은 희생 없이도 가능하지만, 교회의 가르침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만심과 편견을 버리고 봉사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위계질서를 갖춘 또 하나의 제도로 보이는 한, 그 구성원들이 진정한 봉사정신이나 신앙심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 중심도 원칙 중심도 아니다”고 꼬집었

다.

교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랑과 봉사와 관용이다. 교회의 모든 직임은 봉사의 직책이다. 성도들은 직임을 계급으로 보지 말고,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를 섬겨야한다.

33. 권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13:1)

위임 권세

로마서 13장 1-7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들에 대하여 취할 태도를 권면한 글이다.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였다. 여기서 권세란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비행을 처벌함으로써 옳은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빚으셨고, 그 속에 만물을 담으셨기 때문이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한분뿐이시며, 피조물인 인간들은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친 말씀으로 인식하였다. 권세가 인간의 것이 아니란 뜻이다.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권세가 없다는 뜻이다. 어느 누구도 권세를 타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권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임권세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권세가 국가에, 교회에, 가정에까지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위임되었다는 것은 위임받은 자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데 헌신해야 할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다.

권세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는 부(父)와 모(母), 특히 부(父)에게 가정을 치리할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가정에 위임된 권세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권세란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에서 남편과 부인,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놓고 있다.

교회는 성격상 자발적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권세를 위임하시고 치리토록 하셨다. 교회 또한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교회의 일꾼들(목사, 장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이 뽑아 세운 일꾼들에게 순복해야 한다(히 13:17).

국가가 갖는 막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위임권세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위임한 것이다. 17세기에 존 로크는 국가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회계약에 의한, 즉 국민의 암묵적 합의에 의한 권세로 보았다.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권세란 뜻이다. 큰 틀에서 보면,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민심이 천심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임된 권세를 정의롭게 행사해야 한다.

신학자 몰트만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권세를 수직적 위계질서로 보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순환관계로 볼 것을 권했지만, 청지기들에게 위임된 권세의 위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시민은 국가에 충성해야 하며, 국가가 지운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권세의 조직들

그리스도인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며,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나라를 떠나 살 수 없으므로 세상나라에서의 시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

행해야 한다.

가정은 작지만 가장 중요한 권세조직이다. 이 조직 안에서 자녀는 어떻게 권세아래 살 것인가를 배우기 때문이다. 자녀의 교육이 부모의 책임이므로,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부모를 대행하여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부모의 권세를 갖는다. 의무교육 수준에서 학생이 교사와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자기 부모를 어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를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상의 수업은 출석이 자유이므로, 행동규칙을 세우는 권리는 재산권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규칙을 어기는 것은 재산권과 소유권의 위반이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모나 교사가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한 문제들과 의무교육 이상의 수업을 자원한 학생들이 학교행정에 참여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해서 국가기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통치기관과 다르다. 교회의 목적은 잃은 자의 구원에 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사랑이다. 종종 교회의 목적을 사회정의 실현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교회도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므로 개개인의 입장에서 사회정의실현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세가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하고 독려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의 목적을 정의보다는 사랑의 도구로 혼돈 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화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죄와 허물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범죄를 막고 죄인들을 다스릴 국가권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실현하도록 교회에 역할을 주셨고,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국가에 역할을 주셨다.

국가권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법을 만드는 입법, 법을

집행하는 사법, 그리고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으로 나뉘진다. 국가권세의 존재목적은 존 로크의 주장처럼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있다. 이 목적이 달성되려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정의의 실현은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보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대로라면, 정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국가권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평화와 평정(딤후 2:2)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또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제지하고 징계함으로써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가권세의 범위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의 견해가 고대 왕정시대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유지상주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권세와 위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벧후 2:10).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모든 권세조직들에서 권위가 추락되고 권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사회현상에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면만 살펴보려고 한다.

권세 붕괴의 배후에는 자유지상주의가 숨어 있다(벧후 2:19). 자유주의의 원조는 아담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지 못했고, 자유의지의 길을 걸었다. 아담 범죄이후 가인의 가계와 셋의 가계로 나뉘었다.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고"(창 4:26),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반면,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땅에 속한 자들'은 극단적인 생명파괴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가인의 성을 쌓는 기술(창 4:17)과 두발가인의 금속가공기술(창 4:22)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악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옳고 그름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는 권세이다.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결정한 윤리규범에 순종할 것인지, 반역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한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과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셋과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든지, 가인과 라멕처럼 죄의 종의 길을 걷든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택할 자유의지만 있을 뿐이다(벧후 2:19; 롬 6:16-23).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생활보호권, 자율권, 자기결정권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런 요구 속에는 동성혼과 안락사도 포함된다. 공리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 무신론자들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보편적인 규범이 없다. 그들의 규범은 유용성과 실용성이며, 동기나 수단방법에 상관없이 결과를 이상시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이란 미덕, 즉 국가나 이웃에 대한 의무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 타인의 행복, 즉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오직 내게만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식이다. 내가 자살을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콩팥을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든 무슨 상관이나는 식이다. 내 몸의 결정권은 내가 가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낙오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능력위주의 자유

시장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거의 모든 수단을 배제하는 권한축소지향정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마저 상관없다는 무서운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칸트는 자유지상주의와 같이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결과중심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였다.

34. 국가권세가 실현해야 할 정의(롬 13:2-7)

시민불복종

로마서 13장 2-7절은 시민불복종과 국가권세의 정의실현의무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다.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한다든지 불법을 자행할 때에는 시민불복종운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정의와 평화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단 3장, 6장, 행 5:29).

바울은 2-3절에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국가권세가 하나님의 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만일 국가권세가 불의한 칭지기가 되어 신성을 참칭(僭稱)하거나 우상숭배를 강요하거나 불의와 불법을 일삼거나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평화와 창조 질서를 해칠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 평화, 창조보전을 위해서 국가권세에 불복종할 수 있다. 순교자들의 시민불복종이 좋은 사례이다.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마하트마 간디, 디트리히 본회퍼,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이다. 간디는 인간의 목적이 “신(神)을 눈앞에 보기 위한” 것이며, 이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았다. 신(神)은 멀리 계시지 않고, 사람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갖게 하는 것이 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믿었다. 또 신은 사랑(아힘사)이므로, 오직 비폭력을 통해서만 만나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는 비폭력저항운동으로 영국의 철권통치에서 인도를 해방시켰다.

독일인 목사 본회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근거를 둔 평화주의를 외치며, 히틀러정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독일교회에 맞서 싸웠다. 그는 히틀러 암살음모에 가담하였고, 폭탄이 터지지 않아 거사에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서 1943년 37세 때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39세 때 교수형을 받았다. 목사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계획에 참여할 수 있었느냐는 비난에 대해서 그는,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인도를 덮치려고 한다면, 나는 기다렸다가 차에 치인 병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뒷수습하기보다는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차를 향해 뛰어 들것이다.”고 말하였다.

흑인목사 마르틴 루터 킹은 비폭력저항으로 흑인민권운동을 펼쳐 인종차별을 불법화시키고, 팔시와 천대를 받던 흑인들을 각성시켜 마침내 백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하였다. 그러나 킹 목사는 1968년 39세 때 암살당하였다.

하비 콕스는 출애굽사건을 정치권세의 신성화나 신성의 참칭(僭稱)에 대한 거부로 보았다. 엘리야와 칠천 명,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은 우상숭배를 지시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 과거 2천 년간 그리스도인들도 황제숭배나 불의와 불법을 강요하는 국가권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였다.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이고, 절대 권세이다. 하나님이외의 것은 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가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가치와 영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불의와 불법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보복정의

바울은 로마서 13장 4-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국가권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요구에 그리스도인들은 국방과 납세와 교육과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권하였다. 대신에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사회(복지)보장권이 있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있다.

국가는 재외국민과 그들의 재산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성장과 적절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의무를 진다. 법을 만들고 집행함으로써 범죄를 막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영화, ‘어퓨굿맨’(A Few Good Men)을 보면, ‘약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유죄’였다는 말을 하고 있다.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는 양육강식이 판치는 동물의 세계이지, 이성을 가진 인간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보복정의실현은 사회질서를 위한 필요악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생활보호권, 자율권,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간섭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한다. 불의와 불평등 요소들을 줄이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모든 수단을 배제한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내맡기라는 주장이다. 만일 국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린다면, 약자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구약시대에는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란 것이 있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출 21:23-25)값는다는 이 법은 피해자의 손해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입힌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법처럼 보여도 이것이 엄격한 의미의 정의이다.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이, 돈은 형량을 줄여주고, 감옥에서 몇 년 지내면 남에게 끼친 손실의 보상도 끝나버리는 불합리한 법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법이다.

오늘날에는 나라마다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형제도는 존치하지만, 사형집행을 보류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형제도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 죄를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신 19:13,20)가 있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국가가 어느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흉악한 범죄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교훈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중요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에게는 사랑을 명하신 반면, 국가권세들에게는 공의를 명하시며(민 35:29-30), 긍휼히 여기지 말 것을 명령하신다(민 19:21).

분배정의

바울은 로마서 13장 6-7절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였다. 국민이 가진 납세의 의무를 강조한 말씀이다. 바울은 국민이 납세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권세가 국민을 섬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국가권세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들 중에는 분배정의가 있다. 국가는 재외국민의 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사회보장과 복지증진에 힘써야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세워야 한다.

평등을 옹호한 전 하버드대 정치철학교수 존 롤스는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타고났거나 물려받은 재능은 운이 좋았을 뿐이지 자신의 공이 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노력부분은 인정한다할지라도, 운동선수, 기업가, 주식중개인, 학자, 전문가 등에게 부여하는 포상과 명예를 우수한 미덕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존 롤스는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정책, 소외계층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우대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롭고 선하다는 윤리철학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애초에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출발하더라도 출발과 동시에 이내 그 평등은 깨진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이다.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더라도 출발선이 다르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가족의 도움을 받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막대한 밑천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롤스는 차등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차등원칙이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부요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동일한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층이나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능력위주의 사회에서는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부의 분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차등원칙을 통해서 줄일 수는 있다고 보았다.

성경이 주는 교훈은 우주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롤

스의 주장대로, 타고났거나 물려받은 재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정말 운이 좋았을 뿐이지, 자신의 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정)와 공동체주의(반)의 변증법적 합이 복지의 관건이며, 국가권세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35. 율법의 완성법(13:8-10)

모든 일은 사랑으로

바울은 로마서 1-11장까지에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한 후에 12-13장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국가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13장 8-10절에서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10절)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8절)고 충고하였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화목의 개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가로막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헐고 평화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로마서 1-11장까지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 교우들과 이웃과 국가권세와 화목 하는 방법을 ‘사랑’이란 두 글자로 설명하였다.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 본질에는 자유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義)를 이루기 위하여” 613개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도(10:4) 사랑이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거리에서 버려졌다. 때마침 제사장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자를 보았지만 돕지 않고 지나쳤고, 레위인 신분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쳤다. 그 후 사마리아인 신분

의 한 사람이 강도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 난 곳을 포도주로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 헹궂으로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극진히 돌봐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 여관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당부하기를, “이 사람이 기동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 주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소.”라고 말하고 여관을 떠났다(눅 10:25-37).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들려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물었다. “네 의견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으뜸이란 뜻이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선포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10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은 본질에서는 일치할 께하고, 비 본질에서는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여 교우들 간에도 께차 다른 견해나 입장 또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포용하며, 모든 일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의 빛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다. 첫 번째 인물은 강도이다. 강도는 율법을 무시하고 살인강도짓을 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다. 두 번째 인물은 강도당한 사람이다. 이 불행한 피해자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졌다. 그가 당한 불행이 누구의 탓인가? 당대의 유대인들이라면, 그가 당한 불행이 그 자신의 죄나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가 당한 불행이 누구의 탓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그 불행한 자를 도왔는가에 있었다.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는 사랑으로 돕는 것이다. 강도당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사랑의 빛을 지게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악해서였다. 그가 한량이었거나 낭비벽이 심했거나 게을렀거나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남의 것을 약탈하려는 잔악무도한 강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사랑의 빛을 쬐어야 했고, 누군가는 그를 반드시 도와야 했다. 바울은 이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즉 사랑의 빛 말고는 어떤 빛도 지지 말고, 어떤 피해도 입히지 말며, 강도당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율법을 완성하라고 충고하였다.

세 번째 인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강도당한 자들 돕지 않은 것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고, 민수기 19장 11절에서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칠 일을 부정하리라”고 하였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당한 자를 돕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이 강도당한 자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그것을 겪고 있는 당사자나 그들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인물은 사마리아인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혼혈족이었다. 당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서 무슨 가치 있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다. 이런 식의 모욕과 경멸을 당하던 사

마리아인이 오히려 자기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강도당한 유대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었다. 경멸당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 이웃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지운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서 누가 과연 율법을 가장 잘 지켰고, 누가 과연 더 윤리적이었는가? 강도당한 자를 돕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참 정신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음으로 사랑의 빛을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의 빛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자는 그것을 받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 되지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는 그것을 반드시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 된다.

사랑의 빛 갚기

톨스토이는 이 땅에 산재한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사람으로서 그 방법을 <대자>(代子)에 발표하였다. 대부(代父)로부터 대자는 자기 때문에 죽게 된 도둑의 죄를 대신 갚으라는 숙제를 받고 물었다. “도둑의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대부가 대답했다. “세상에 나가서 네가 지은 만큼의 죄를 지워 가면 된다.” 대자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대부가 말했다. “암자에 사는 은자(隱者)를 찾아가면 그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그가 지시한 일을 완수하면 도둑이 지은 죄를 갚게 된다.”

은자는 대자에게 나무를 잘라 세 토막 낸 다음 불에 태우게 하였다. 그리고 불에 새까맣게 탄 나무토막들을 산언덕에 심게 한 다음, 매일 산 아래 흐르는 개울의 물을 입에 머금고 와서 뿌려주도록 했다. 만일 나무토막들이 살아나면 대자의 짓값이

칭산될 것이라고 말해준 다음 은자는 죽었다.

대자의 수도생활은 성공적이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나무토막에서도 짝은 트지 않았다. 어느 때부턴가 잔악무도한 살인강도가 암자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그가 무서워서 발길을 뚝 끊었다.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 신자들은 은자를 존경했지만, 강도는 먹고 살기위해서 기도하는 대자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은자의 설교를 오히려 비웃었다. 수행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대자는 자신이 세상평판에 현혹될 뿐 아니라,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암자를 버리고 숲속에 숨어버렸다. 대자는 먹고 사는 염려를 그치고 마음을 맑게 했던 것이다. 그제야 나무토막 하나에서 새싹이 돋았고,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그 후 또 다른 10년의 수행 끝에 대자는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대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짝값, 즉 사랑의 빛을 갚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때마침 살인강도가 돈 많은 장사꾼의 아들을 납치하여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대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인강도의 말고삐를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죄 없는 젊은이를 놓아주라고 타일렀다. 어떤 일인지 강도가 대자의 말에 순순히 따랐다. 수행 20년 만에 대자는 비로소 끈고 강직한 마음을 가져야 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튿날 대자는 두 번째 나무토막에 새싹이 움튼 것을 보았다.

다시 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대자는 “하나님께서서는 얼마나 큰 행복을 인간에게 내려주셨는가! 실상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공연히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살인강도가 시름에 찬 표정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대자의 마음에 사랑의 밑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살인강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한걸음에 달려가 그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

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살인강도가 무릎을 꿇었다. 대자는 비로소 미움을 태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갖지 못하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머지 나무토막에 새싹이 움텄다. 강도는 회개했고, 죽은 대자를 대신해서 은자가 되었다. 그렇게 대자는 자기가 진 사랑의 빛을 다 갚을 수 있었다.

36. 지금은 자가가 깰 때(롬 13:11-14)

자다가 깰 때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에서 “이 시기,” “자가가 깰 때,” “구원이.... 가까웠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영광스럽게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승리의 합성을 외치며 광야사막에 성공리에 첫발을 디딘 이후 40년간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더니, 비로소 그들이 목적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뜻이다.

12절의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목적지 점령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할 때요, 갑옷을 차려입고 허리띠를 단단히 매어야 할 때요, 전술을 익히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요, 무기를 점검할 때라는 뜻이다. 그들이 걸어온 세월은 깊은 밤처럼 어둡고, 모래바람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처럼 매서웠다. 그들이 지나온 길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토착주민들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과 싸우는 험난한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으니, 그들의 행군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 어느덧 목적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는 깊은 밤처럼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날들이 지속되었으나 이제 머지않아 빛과 질서와 생명의 날들로 바뀔 것이니, 지

난날 광야사막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믿음을 저버리며 분열을 획책한 자들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는 뜻이다. 광야사막에까지 성공적으로 들어왔으나, 고난을 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주의 종 모세를 모함하고, 세력을 규합하여 싸우며, 시기하고, 음란한 바알종교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하였던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자는 뜻이다.

14절의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육신의 안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과 복음의 일을 계획하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이곳 로마서 13장 11-14절에서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사막에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연상하면서 그 같은 상황들을 신약시대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고, 우리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권면하였다. 우리 신앙인들은, 먼 옛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교인이 되어 신앙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지, 어느덧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 가나안 땅이 멀지 않으므로 깨어 근신하며 더욱 힘써 준비하여 하늘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갖추자는 것이다.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뜻은 ‘장차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는 뜻이다. ‘장차올 좋은 것’이란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한 하늘 가나안의 개념이며, 유대교인들이 ‘희망’(Ha-Tikvah)하는 ‘올람하바’(Olam Ha-Ba)를 말한다. ‘올람하바’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한다.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는 다가올 세계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문자적으로 이뤄질, 즉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 예배가 회복된 다윗 때와 같은 왕정국가 또 유대교가 통치이념이 되는 신정국가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신약성경에 언급된 ‘장차올 좋은 것’은 유대인들의 ‘다가올 세계’와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공통점은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란다는 점이다.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현 세계를 최종적인 세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기독교인의 장차올 세계는 천국을 의미하고, 유대교인의 장차올 세계는 그들의 나라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지만, 현 세계가 궁극적인 세계가 아니라고 믿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장차오기로 약속된 이 세계가 멀지 않다는 점이다. 그 세계가 가까웠다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6장 9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좋은 소망’(7:19), ‘더 좋은 언약’(7:22), ‘더 좋은 약속’(8:6), ‘장차올 좋은 일’(9:11), ‘장차 나타날 좋은 것’(10:1)을 연이어 말씀하였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역사를 수놓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사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였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시고, 미리 세워둔 ‘더 좋은 계획’에 따라(40절) 그들을 위한 ‘환도시’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셨다(16절)고 밝히고 있다.

바울도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였다(엡 1:21).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제대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올 것을 보장하는 보증금으로써”(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올 좋은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금’과 ‘인감’으로써 설명되었다.

광야사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로마서 13장 11절은 이제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 성취될 구원의 그 날이 가까웠으므로, 바짝 긴장하여 구원을 쟁취하자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올 좋은 것’ 즉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히 6:17절)고 말하면서, 이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받을 땅에 나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였다(히 11장). 구원이 가까웠으니,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더욱 분발하자는 말씀이다.

참 안식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 땅은 참 안식을 주지 못함으로 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잠에서 깰 때임을 강조한 말씀이다.

유대교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테마가 안식이다. 유대인들은 오랜 유배생활에 지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안식은 절대적이고, 신성하며, 지복의 상징이다. 수천 년간 유배생활에 골병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정말 특별한 개념이다. 그들이 그토록 안식일을 엄하게 지킨 이유, 상황에 따라서는 수백 가지가 넘는 상식을 초월한 안식일 법들을 만들어 지킨 이유가 그들의 오랜 유배생활과 무관치 않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절실하고 뼈저리게 안식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달픈 세상은 참 안식의 땅이 아

니다. 로마서 13장 11-14절은 참 안식의 날이 멀지않았으니,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자는 권면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원형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아람의 유목민이었던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유랑세월 끝에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다.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진입하였다. 그래서 기나긴 세월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얻게 되는 가나안 땅, 나라 없이 떠돌던 설움을 한 순간에 씻어버릴 가나안 땅의 진입은 오랜 고난과 시련에 종지부를 찍고 얻게 되는 안식의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 불모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영원한 안식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밤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 타향에 살아도 내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고 희망을 노래한다. 그들은 또 가나안 땅 밖에서 사는 것을 유배생활로 간주하면서 언젠가는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희망을 담은 이스라엘 애국가가 ‘하티크바’(Ha-Tikvah)이다. “유대인의 영혼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동쪽으로 향한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이런 간절함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거침없이 향한다. 이것을 ‘알리야’(aliyah)라 부르는데 ‘오름’이란 뜻이다. 이 오름이 다윗왕조회복, 성전예배재건, 세계통합이란 역대기 사가들의 이념과 연결이 되면 ‘시온에 오름’이 된다. 이 꿈이 이뤄질 때,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오름’을 향한 희망은 유대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가나안을 향한 오름으

로 강하게 불타야 한다. '장차올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신실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37. 견해차이의 문제(롬 14:1-23)

비 본질의 문제

본질에는 일치, 비 본질에는 자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방법이다.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가 본질의 문제인가? 특정한 날짜를 중요시하는 문제가 본질의 문제인가?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특정한 날짜를 중요시하는 문제로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의롭다하심을 입은 성도가 취할 태도인가?

신학자들은 로마교회의 구성원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보였다. 유대인들의 교회였을 가능성(3:9; 7:1; 9-11장), 이방인들의 교회였을 가능성(1:5f; 6:19; 11:13; 28-31), 혼합교회였을 가능성 중에서 혼합교회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중요한 것은 로마교회가 단일 교회였기보다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란 점이다. 이들 교회 안에,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먹는 문제나 절기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2:1f),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11:8)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터인데, 특히 고기 먹는 문제와 절기 지키는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14:1f). 그러나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역설한바 있다(10:12). 신학자 마르크센(W. Marxsen)은 로마서 1-11장은 로마교회를 생각하면서, 선교헌금 수집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연합문제는 예루살렘교회를 생각하면서, 고기 먹는 문제(고전 8:4f)는 고린도교회를 생각

하면서 썼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로마서 14장 1절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할지라도 아직 유대교의 율법이나 절기 등을 버린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카샤룻’(Kashrut) 음식율법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었다. 특히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로마사회에서 시장에 나오는 고기제품들과 포도주제품 등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금지 식품이었다. 그것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엄격한 율법 때문에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는가?”라고 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3-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먹지 않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는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비 본질의 문제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엄중히 충고하였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14:8)고 하였다.

유대인의 보편적 사고의식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려한다.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했고(행 10:9-16),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방문을 비난하였으며(행 11:2-3),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교회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을 보자, 접을 집어먹고 자리를 뜬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로부터 책망

을 받았다(갈 2:11-14).

유대인들은 동식물은 물론이고, 음식과 물건들까지도 부정한 것(treyf), 정한 것(kosher), 거룩한 것(kodesh)으로 구분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하며,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엄격한 유대교인들은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한다. 이것이 2천 년 전 바울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도 보편적인 의식이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없는지, 그 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야 하는지를 다룬 '카샤룻'(Kashrut) 음식율법, 식사 전 손 씻기 율법, 그릇 씻기 율법 등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율타리(gezeirah) 율법들이 있고, 생활화되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일 년 중 지켜야 하는 절기들과 축일들이 많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세 차례이상 기도회를 갖는 안식일이 있고, 39가지 범주(Melachot) 속에 수백 개가 넘는 안식일(shabbat) 율법들이 있다. 유대인들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만 빼고 모든 절기를 음력으로 지킨다. 설날을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음력 8월 혹은 9월 1-2일에 지킨다. 로쉬 하샤나는 10일 후에 달는 '욘 키푸르'(Yom Kippur) 곧 대 속죄일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 열흘 기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고, 용서받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한해를 시작한다. 그리고 5일 후인 음력 15일 보름날 해질 때부터 8일간 추수감사절인 초막절(Sukkot)를 지키고, 이어서 모세오경의 완독을 기념하는 심חת 토라(Simchat Torah)를 지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연초(年初)에 지난해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굳게 다짐하며, 속죄선언을 받고, 8일간의 추수감사제와 심חת 토라로 새해 첫 달인 티쉬레이(Tishrei)의 대부분을 보낸다. 그리고 12월경에 헬라제국의 셀류키드 왕조로부터 성전을 되찾아 봉헌했던 것을 기념하는 '하누카'(Hanukkah)를 8일 동안 불을 밝히는 축제로 지킨다. 또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하

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관련 성구들을 읽는 '부림절'(Purim)을 2-3월경에 지키고, 춘분이 지난 첫 보름날부터 8일 동안 '유월절'(Pesah)과 무교절을 지키며, 유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Shavuot)을 지킨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과 시내산에서 '율법'(Torah)을 전수받은 날로 지킨다.

유대인의 절기축제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관련된 절기들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없이 뜻 깊고 중요한 축일들이다. 이것들 중에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깊은 축일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이다.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창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의 보편적 사고의식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의식은 만물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다. 가장 작은 것, 가장 초라한 것, 가장 못난 것에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질도 아닌 비 본질의 문제로 형제들을 비판하고 훼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충고하였다.

바울은 14장 1-12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1절)고 하였고,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2절)고 하였으며, 이것을 놓고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3절)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지만"(5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यो,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

나님께 감사한다”(6절)고 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7-8절)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9-12절).

또 바울은 14장 13-17절에서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13절)고 하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아무 것도 부정한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부정하다(14절)고 하였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15-16절)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17절)고 하였다.

또 바울은 14장 18-23절에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 그리스도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18절)고 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19절) 사람들이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20절) 자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20절)고 하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21-23절)고 하였다.

38. 로마서 기록의 동기(롬 15:1-33)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1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 사도로 삼으신 것과 성령님의 능력과 표적으로 온 누리에 기독교복음이 전파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바울은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과 전통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오랜 열방선교의 뜻을 만천하에 폭로시킨 인물이었다. 소수 유대민족의 신(神)으로서 예루살렘성전의 지성소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온 인류를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친히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천하에 공포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국적불명의 불법체류자와 같던 이방인에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며, 고아와 같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기쁨의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한 인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주님이 되시며,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천국복음을 전파한 인물이었다.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상속받는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마치 마라톤평원에서 이뤄진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 달렸던 전사처럼, 목숨 바쳐 알린 인물이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강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기독교 복음은 자칫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 영토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의 소유자들이었던 히브리파-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손에 잡혀서 팔레스타인의 울타리 속에 수십 년 갇혀 있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수도 있었다. 이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헬라파-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구출하여 세계로 수출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같은 히브리파-유대인들은 편협한 배타적 선민의식과 독점적 영토주의와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대의 헬레니즘 문명권에 동화되지 못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헬라문화와 언어 및 지리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자랐거나 공부한 경험이 없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세계 선교에 기여할 능력이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들이었던 바울, 바나바, 스데반, 빌립과 같은 헬라파-유대인 기독교인들의 포용적이고 열린 복음적 사고와 익숙한 언어와 문화수준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셨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열방민족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제2출애굽사건을 이끌 그리스도가 세울 세계(Olam Ha-Ba)는 유대인들이 지배하게 될 유대인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왔다. 지금도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바울은 로마서 15장 18-19절에서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의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바울이 언급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역사(役事)는 크게 둘로 나뉘 생각할 수 있다. 특별한 방법의 역사와 일반적이고 자연스런 방법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초자연적인 통치, 기적, 계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역사는 자연스런 조절, 섭리, 영감을 말한다. 통치, 기적,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써, 천지창조, 홍해바다의 갈라짐, 성육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며, 자연법칙 또는 인과법칙에 어긋난 사건의 발생을 말한다. 그러나 조절, 섭리,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런 방법으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것으로써, 의사나 약의 도움에 의한 치유, 친지, 교우 또는 이웃을 통한 기도응답처럼 자연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시공(時空)을 초월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 그런데 성경이 기적을 말할 때는 언제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서(행 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큰 권능’(power)은 기적의 근원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둘째, ‘기사’(wonders)는 표적과 함께 언제나 복수형으로 쓰인다. 기적의 결과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셋째, 표적(signs)은 확증, 입증을 의미하는데, 기적의 목적이다. 기적은 표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기적은 주님의 종이 전한 계시의 진실성을 입증, 증거, 확증하는 표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행함은 증거적인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나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가 행한 수많은 기적들은 이스라엘 국가형성을 위한 것이었고, 엘리야가 행한 많은 기적들은 야훼가 참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다(왕상 17:24). 둘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과 기적들과 병고치심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

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키 위한 것이었다(행 2:22). 그리고 셋째로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교회창립과 신약성경의 완성을 위한 것이었다.

기적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랜 자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인간의 고통과 절고를 친히 짊어지실 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다. 그 오랜 주님의 자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길을 찾았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는 무리들, 바람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 같은 민초들, 폭풍만난 제자들, 소경들, 앓은뱅이들, 문둥병자들, 다섯 남편가진 여인, 38년 된 병자, 혈류증을 앓던 여인 등, 앞 못 보고 걷지 못했던 상하고 찢긴 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입었던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바울의 로마방문계획

바울은 로마서 15장 20-33절에서 자신의 정황과 로마서 기록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스페인 선교를 위한 로마방문의 계획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예루살렘교회 방문을 앞두고 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 있는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싶었다. 이방인교회들의 선교헌금은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로부터 받은 영적축복을 되돌려주는 감사표시로서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예루살렘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교회에 변절자들이 생긴 점에 대해서 과격하게 대응했던 바울은 예루살렘교회와 불편해진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한 문제들, 즉 기독교복음에서의 이스라엘의 역할, 토라와 할례 등의 역할에 대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로마교회에 미리 펼쳐 보임으로써 예루살렘교회에서의 변호를 준비하였다. 그것은 로마교회의 이방인들에게 시급한 문제였을 뿐 아니라, 갈라

디아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해소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넷째, 로마에서 발생된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사이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바울은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잘못된 우월감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런 점들에서 로마서는 주후 58년 오순절 무렵에 예루살렘교회에서 행할 담화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였다고 볼 수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일차적인 대상은 항상 유대인들이었다.

로마서 1-4장은 본질적으로 유대인과의 대화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은 그들 모두를 죄 아래 있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그들 모두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하여 해방하고 연합시킨다. 그리고 로마서 5-8장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하나다'는 모티브를 가지고 새롭고 영원한 다가올 세계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물론이고, 민족, 성별, 빈부, 귀천의 차별은 없어졌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기되어져버린 구시대의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니다. 율법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5-8장은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과 승리를 표명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수개월내에 맞닥뜨려야할 예루살렘교회에서의 변호, 갈라디아교회에서의 위기, 로마방문계획의 설명과 중재기도의 요청, 로마교회가 당면한 문제 등이 바울로 하여금 그가 20여 년간 전파한 기독교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역할, 토라와 할례 등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묻는 유대인들의 물음에 해답을 찾으려 강요하였다. 로마서가, 특히 9-11장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보편성을 위하

여 적대자들과 싸우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구원의 역사에 반대하여 논쟁을 펼친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보편성과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일정부분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39. 바울의 반천련(롬 16:1-27)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1549년 8월 15일 일본에 입국한지 50년이 지난 박해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일본인들은 기독교인들,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을 반천련(伴天連)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란 뜻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7월에 반천련들은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린 바 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에게 천국까지 동행하는 동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로마서 마지막 장이다. 그들 중에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으며, 친척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다. 특별히 가죽세공업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

바울을 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으리만큼 그의 선교사역과 가르침은 일세기 중엽 지중해 연안의 전 유럽을 발각 뒤집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바울은 시리아, 키프로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전 유럽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신약성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옥같은 13편의 서신들을 남겼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이 과연 가능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 부부 이외에도 디모데, 디도, 실라, 마가, 누가, 에바브로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였지만, 성경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부부는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상의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난 곳은 제2차 선교여행 중이었던 주후 51년 경 그리스 남단에 위치한 아가야 지역의 대도시 고린도에서였다(행 18:1-2, 26).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중에 터키지역에서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딤후 3:10-11, 행 14장, 갈 4:13-15). 바울이 고백한대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심각한 신체적 고통이 있었는데, 그의 신체적 장애가 바로 이곳 터키에서 받은 박해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이 지방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로 몰매를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다. 이 도시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자 남 갈라디아에 있었다. 이 지방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갈 4:13-14). 이 말씀은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육체적인 시험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물겹도록 사랑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에서 바울은 결코 정착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겉으로 나타난 이유였지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난 제2차 유럽선교 때부터는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 지방에서 유력한 동역자를 찾지 못한 것이 바울 일행이 터키 지방에 정착하지 못한 숨겨진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 본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였다(행 18:3).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바울 일행은 이들 부부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18개월간 장기 체류하게 되었다. 경제

적인 안정기반과 신체적인 보호는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고린도 전체에 힘써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동역자가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살다가 주후 49년경에 고린도로 추방되어 온 사람들이다. 아굴라는 흑해에 가까운 터키 북부 본도지역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상류계층의 귀부인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다. 가부장제도의 전통을 깨고 여성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성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가 총 여섯 번 가운데 네 번이나 된다. 성경에 보면, 동생의 이름이 형들의 이름보다 언제나 앞에 놓여서 형과 동생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삭과 이스마엘, 모세와 아론이다. 셈은 함과 야벳의 동생이고,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의 동생이며,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지만, 이 동생들의 영향력 때문에 형들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언제나 앞에 온다.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보다 앞에 쓰인 경우가 많은 것은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아굴라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온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이다. 이때쯤에 바울 일행은 터키 동북부지역인 흑해남단의 비두니아(Bithynia)지역에서 제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환상을 보여 줌으로써 유럽선교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18개월 동안 사역하게 하셨으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협동사역자로 동역하게 하여주셨다.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제2차 선교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서, 다음 선교지역을 터키해안지방에 위치한 종교도시 에베소로 결정하고 선교단 전원이 고린도를 떠났다.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로 이주했고,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은 바울의 파송교회인 안디옥교회와 사도들의 교회인 예루살렘교회를 차례대로 방문하였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합류하였다.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2년은 걸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2년 남짓한 이 기간에 선교기반을 닦고 있었고, 바울 일행이 도착하면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수년 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 일행보다 2년 남짓 먼저 고린도에 이주해서 정착하고 있었다. 바울이 가는 곳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배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체류한 것은 2년 3개월 동안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제3차 선교를 성공리에 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행 18:18이하; 고전 16:19). 그런데 로마서 16장 3-4절을 보면, 바울의 다음 선교지인 로마에 이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먼저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보다 먼저 다음 선교지에 가 있는 것을 본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업가로서(행 18:3), 전도자로서(행 18:26), 바울의 동역자로서(3절), 혹은 주의 종 바울을 목숨 바쳐 섬긴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4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였으며, 그들의 집을 사업장으로,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로, 교회로(4절, 고전 16:19), 혹은 선교사들의 합숙소로 제공하였고, 바울의 말년에는 이들 부부가 에베소교회를 직접

말아 사역하기도 했다(딤후 4:19). 또 로마서 16장 4절에 기록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바울의 고백으로 보아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운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배후에는 헌신적인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혼자서 힘만으로 또는 몇 사람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목사의 설교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휘자의 노력만으로 성가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도사의 힘만으로 주일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의 기도와 참여와 봉사와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가 협동 사역하는 동역자라는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직분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훌륭했던 것은 그들이 스타 같은 바울, 영웅 같은 바울을 우상처럼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 바울을 도왔기 때문이다. 바울은 흔히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마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문벌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많이 배웠다는 것 말고는 인간적으로 남 앞에 내놓을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고,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었는데, 이는 그의 선교사역에 아주 치명적인 장애요인이었다. 바울의 외모 또한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못생긴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체구는 작았고, 양미간은 맞닿았으며, 약간 매부리코와 대머리에다 다리까지 오자로 흰 사람이었다. 바울은 언변도 그리 좋지 못했다. 바울은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었지만, 결코 능변가가 아니었다. 고린도교회에는 바울의 이런 약점

을 이용하여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 그들에 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대다수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처럼, 헌신적으로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사역에 밑거름이 되었다.